
국제 포럼

연대의 힘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동력

자발적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스웨덴 미투 운동을 이끈

수잔나 딜버

Suzanna Dilber

초청 포럼

주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후원 여성가족부 / 서울특별시

포럼1

18. 10. 5 (금)

PM 6:00

부산 영상 벤처 센터

포럼2

18. 10. 7 (일)

PM 5:00

서울 이음센터 이음홀

#TYSTNAD TAGNING

KARI HAMFORS WERNOLF
EMMA MEYONIC
MELINA TRANULIS
ANNA M PERSSON
KARIN GILLBERG STYVERS
JOHANNA SKOBE
ALEXANDRA LINDHOLM
MIRA EKLUND
ESTER CLAESSON
KATARINA BOTHEN
EMELIE FLOREN
MOA SILEN
HULDA LIND JOHANNSDOTTIR
ISABELL SKARBY HAY
KRISTINA NILSSON
MAJA EMBRINK

KIM THEODORIDOU BERGQUIST
SARA BEXELL
SIRI FAGERUDD
MALIN KARLSSON
BODIL MALMBERG
LISEN ROSELL
CHARLOTTA GURESTAM
HANNA OLLIKAINEN
SOFI HELLEDAY
IDA BREIMO
JOHANNA MALM
AMANDA RENBERG
ANNA SJÖE
STINA GUNNARSSON
JANNA GRANSTRÖM
KARIN BERGQUIST

ANNA WALLANDE
INGER NILSSON
ANNA-MARIA HALLG
ALICE HILBOM RUDF
LINNEA TENGROT
ANNIKA RYBERG WHITTI
MOA HALLGREN
ZARA ZIMMERMA
VIBEKE OSKAL
CARLA SEHN
JOSEFIN LJUNGMA
AGNES HÄRGNE WALL
SARA ZOMMOROJ
KARIN BENGTSSC
AMELIE NÖRGAÅJ
MARIA SELANDE



프로그램 개요 - 부산

포럼1	- 10월 5일 (금) 저녁 6시-9시 - 부산영상벤처센터	사회자 주유신 영산대학교 문화컨텐츠학부 교수
발제1	We stand together like sisters 스웨덴 예술가들의 공동 미투 선언	수잔나 딜버 배우, 작가 스웨덴공연예술부문 배우연맹 이사장
발제2	한국 영화계 미투 운동의 흐름	이화정 씨네21 기자
발제3	부산 문화예술계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한다는 것	송진희 미술가,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토론1	미투 운동, 자발적 연대의 싹을 틔우다	박영희 배우, 연출가 JamBoxTheatre창단멤버,컴퍼니배드소속
토론2	반성착취운동가 시선에서 본 새로운 예술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소장

주최 |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후원 | 여성가족부

프로그램 개요 - 서울

포럼2	- 10월 7일 (일) 저녁 5시-9시 -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 이음홀	사회자 로리주희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발제1.	미투로 만난 예술가 국제 연대	박영희 배우, 연출가, JamBoxTheatre창단멤버,컴퍼니배드소속
발제2.	We stand together like sisters 스웨덴 예술가들의 공동 미투 선언	수잔나 딜버 배우, 작가 스웨덴공연예술부문 배우연맹 이사장
발제3.	시카고 스탠다드에 관한 보고서	전강희 비평가, 인디언밥 웹진 편집인
토론1.	미투에서 발견한 연대의 힘	조한진희 다른몸들(준)
토론2.	우리가 꿈꾸는 현장	김신록 배우, 창작자

주최 |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시성평등지원센터 / 후원 |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자 료 목 차

	제목	발표자	페이지
1	미투 운동, 자발적 연대의 싹을 틔우다	박영희	3
2	We stand together like sisters 스웨덴 예술가들의 공동 미투 선언	수잔나 딜버	9
3	미국 <시카고 씨어터 스탠다드> 보고서	전강희	25
4	한국 영화계 미투 운동의 흐름	이화정	32
5	부산 문화예술계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한다는 것	송진희	37
토론문	미투에서 발견한 연대의 힘	조한진희	41
토론문	우리가 꿈꾸는 현장	김신록	51
토론문	반성착취운동가 시선에서 본 새로운 예술	변정희	58
녹취	부산포럼 토론 녹취문	-	62
녹취	서울포럼 토론 녹취문	-	71
참고문	스웨덴 미투 관련 기사 스크랩	슬로우뉴스 (오한아)	87

미투 운동, 자발적 연대의 싹을 틔우다

박영희¹⁾

연출/배우, 극단 잼박스/컴퍼니 배드 소속

지난 2월 수십년 동안 한국 연극계를 병들게 한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마침내 수면위로 떠올랐다. 연극계의 미투가 초기부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수 있었던 것은 수십년 동안 한국 연극의 대표적 거장이라 추앙 받아 온 이윤택과 오태석에 대한 미투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희단 거리패 출신의 김수희 연출의 미투는 서지현 검사의 첫 공개 미투 이후 우리 사회의 또다른 상징적 사건이 되었으며 이후, 수십년간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침묵하던 다수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에 그들의 증언을 가능하게 만든 기폭제가 되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철옹성과 같은 이름, 한국 연극사에 거장 혹은 천재라 불리던 이름, 인기와 명예의 상징이었던 이름 앞에는 성희롱 성폭력의 가해자라는 타이틀이 대체 되었고, 그들은 생존자들에 의해 소환되었다.

광장으로 나온 관객들

이윤택과 오태석, 두 거장의 가해 사실은 연극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예술가의 삶과 그의 작품의 경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과 소임은 무엇인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남겼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시기 마다 시사성 강한 작품으로 대중과 평단 그리고 관객으로 부터 엄청난 지지와 존경을 받아 왔기에 그 충격과 배신감은 더 했다. 이는 연극의 최종 완성자인 관객들로 하여금 마로니에 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게 했다. 300여명이 넘는 관객들은 즉각적, 자발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피해 예술가들에게는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그리고 가해자를 향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혼란 그 자체였던 한국 연극계에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답을 제시하였다. “관객은 성범죄자의 공연을 원치 않는다”, ‘공연계 성폭력 아웃(OUT)’. 미투로 인해 수십년 동안 즐겨보던 거장들의 작품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한탄하는 공연계 안밖의 사람들, 예술가의 개인적 일탈행위나 성격적 결함은 예술가의 작품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일각의 의견에 대해 관객들은 한 마디로 “사람을 짓밟는 예술은 없다, 예술의 근간은 사람이다!” 며 일갈한 것이다. 이 날 관객들

1) 박영희 - 예고, 예대 연극과 졸업 후 극단 목화에서 배우 생활을 했다. 이후 라트 어린이극장에서 호주 예술가들과 작업하면서 연출가와 극작가로 연극교육과 퍼실리테이터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지난 10년간 주로 호주와 한국에서 배우와 초청교수, 공동창작, 한국-호주 예술가 국제교류프로그램 등의 프로듀서로 활동하였고, 현재 극단 잼박스의 연출가이자 한-호 공동창작집단 컴퍼니 배드 멤버이다.

은 앞으로 공연 예술계의 건강한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피해자와의 연대와 지지를 계속 할 것을 천명하였다.

생존자인 ‘나’, ‘우리’가 되다.

한국 공연 예술계의 미투는 개개인의 자발적 결단과 용기에 의해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과 고발의 형태로 시작 되었다. 대부분의 생존자들에게 이러한 결단에 앞서 차마 주변의 가까운 동료, 친구 혹은 가족과의 논의나 의견 조율등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 이었다. 그렇게 미투 생존자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가늠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안고 대중 앞에 섰다. 그리고 그들이 감내한 2차 피해와 가해자들의 역공은 상상을 초월했다.

가령 오태석의 경우 기자회견을 자처했다가 당일 잠적하여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음으로서 피해자들은 물론 여론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그의 침묵은 미투를 고려하던 다수의 피해자들, 그리고 이미 미투를 한 피해자들에게 분노와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금도 생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운택의 경우 초기에 자신과 당시 극단 단원들을 통한 적극적인 해명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아이러니 하게도 오랜 세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운택 생존자들로 하여금 강력한 연대를 불러 일으켰고, 그들을 돕기 위한 자발적이고 대규모의 공동 변호인단 구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연극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총 23인의 고소인단과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이들의 연대는 결국 반년만인 지난 9월 19일 이씨에게 징역 6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게 하였다.

이는 ‘미투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한 형사사건으로는 첫 실형 선고이며 그동안 가해자 중심의 성폭력, 성희롱 판결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앞으로의 성희롱, 성폭력 판결에 있어 역사적인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

연극인들의 자발적 연대의 시작.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

한국 연극계에는 각종 협회가 존재 하지만, 실제로 현장 예술가들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는 연극인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이들 협회나 단체들은 공연, 연극계 내의 학연, 지연, 그 외 다양한 인맥에 의해 움직이고 각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와 같은 인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이들 협회의 상위 조직 그룹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예술가들이 상당수 존재하였기에 이들의 대한 불신과 갈등의 골은 미투 이전부터 꽤 깊었다. 그것은 지난 2월 미투가 공연 예술계를 강타 할 때 이들의 무기력함 혹은 무책임 함은 침묵으로 때론 한장짜리 성명서의 형태로 단적으로 표현 되었으며, 이

는 결국 젊은 현장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연대체의 구성을 절실하게 하였다.

지난 2월 21일 극단 고래 연습실에서 150여명이 넘는 친구세대의 연극인들이 한데 모여 장장 7시간에 걸친 대토론 끝에 22일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을 출범하고 피해자 지원 등 계획을 밝혔다.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은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연극 현장에서는 다양한 층위의 폭력이 있었고, 위계적 구조에 의해 더욱 강화됐다”며 “우리는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무대뿐 아니라, 창작 과정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을 직시하고 성찰하지 못했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상담창구(theaterwithyou@hotmail.com)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예방, 철저한 피해자 중심의 사고·행동 등 구체적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성반연은 결성 당시 약 30여명이 넘는 현장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매주 이어지는 수평적 의사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월요 모임의 조직과 운영, 각종 포럼 진행과 미디어 언론 대응, 현장 예술가 뿐 아니라 예술 대학 내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연대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나아가 현재 논의 중인 문화 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 예술가들의 목소리가 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공연계와의 연대- International Sisterhood

1. 한국과 대만의 국제 연대 사례

지난 4월 오태석 피해자들은 뜻밖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극단 목화의 대표작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루마니아, 대만 해외 공연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강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목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되었기 때문이다. 2월 말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고 있던 오태석은 전년도 예술경영 지원센터로부터 받은 해외공연 지원금에 극단 자부담을 더하여 루마니아의 국제 세익스피어 연극제와 대만 국립전통예술센터의 초청 공연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생존자들과 성반연 그리고 공연 예술계 다양한 연대체들이 즉각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우선, 예술경영지원센터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해명을 요청하였는데, 올해가 아닌 전년도 사업으로, 해외 공연 기관과 연관된 사업이라 공연을 취소하면 막대한 수수료를 물어야 함은 물론이고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루마니아에서의 공연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 취소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가 하면, 오태석 당사자에 대한 지원은 배재하였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예경의 답변은 시대와 역행하는 공연행정 기관의 안일하고 위험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태석 피해 당사자들과 연극계 안밖의 분노와 공분을 뒤로 한채 극단 목화는 루마니아 공연을 강행하였다.

이후 대만 공연이 단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태석 피해 당사자는 한국, 호주 공연 예술계 동료들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대만 공연계의 대표적 지한파이자 여성 공연 프로듀서 란 베이츠와 연락을 취하여 목화의 대만 공연이 그곳 관객들과 대만의 공연 예술계에 얼마나 기만적인 행위인지에 대해 역설하고, 공연 취소를 위한 대만 예술가들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연대를 호소하였다. 이에 란 베이츠는 즉시로 대만의 공연 예술계 동료들과 격론 끝에 대만 언론에 공식 성명을 발표 하였다. 이는 대만 사회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대만 언론을 통해 기사가 나가고 채 하루가 지나기 전인 5월 3일 저녁 대만 국립전통예술센터는 ‘대만전통극페스티벌’에 초청한 한국 극단 목화의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취소를 전격 발표하였다.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대만과 한국 공연 예술 국제 연대는 해외 초청 공연 취소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결과를 이뤄 내었다. 오태석 피해 당사자인 필자와 란 베이츠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였지만, 이 일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각별한 존경과 지지를 보내며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는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2. 스웨덴 여배우들의 연대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다

지난 6월과 7월 나는 미투의 격랑 한복판에서 지칠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자 잠시 한국을 벗어나 스웨덴에 살고 있는 동생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귀국을 2주 앞둔 어느날, 스웨덴 국영 방송 기자인 제부에게 스웨덴 예술계의 미투 운동에 관해 물었다. 복지선진국 스웨덴은 다를 거라는 나의 기대와는 달리, 북유럽 국가 중 최초로 스웨덴에서 미투 운동이 촉발 했으며, 연극, 공연, 영화 그리고 TV 연기자에 이르기까지 500명이 넘는 여배우들이 한 날 한시에 공동 성명을 내고, 단체 미투를 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장르를 아우르는 여배우들의 연대를 통하여 미투의 폭발력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영민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 했을까? 스웨덴을 떠나기 전 그들을 직접 만나 답을 듣고 싶었다.

제부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스웨덴 배우조합의 의장이자, 미투 운동을 이끈 수잔나 딜버(Suzanna Dilber)와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 부분에 노미네이트 된 배우이자 연출가인 바하르 파스(Bahar Pars)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일면식도 없는 무명의 한국 배우의 이메일에 과연 답을 해줄까하는 우려와 달리, 바하르 파스로부터 답이 왔고 며칠 뒤 스톡홀름 시내에서 바하르를 만났다. 우리는 첫 눈에 우리 가운데 이미 자리한 끈끈한 동지애와 연대의식을 확인 하였다. 바하르는 개개인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용기를 내고, 그 용기가 사회 전반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한국의 미투 운동 양상에 놀라움과 경의를, 나는 500여명이 넘는 여성 예술가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냈다.

바하르 말에 따르면 미투 이후 스웨덴 대중의 반응, 미디어의 2차 가해, 가해자들의 대응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수잔나의 발제문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본인이 주목했던 것은 스웨덴 미투 이후에 벌어진 현장의 반응이다. 스웨덴 공연, 영화 예술계가 미투 취한 실질적 행동은, 가해자들의 행위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망가진 예술 생태계에 의해 생겨난 ‘현상’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약 1시간 반에 걸친 바하르와의 인터뷰는 나로 하여금 스웨덴 여성 예술가들의 연대 사례를 한국의 공연 예술계 동료들과 공유하여야겠다는 원의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원의에 화답하듯, 스웨덴의 수잔나 딜버가 늦은 답장을 통해 언제나 도움과 지지 연대가 필요하다면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해 주었다. 나는 그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오늘 10월 국제 포럼을 함께 계획하기 시작했고 여러 동료들의 헌신적인 도움에 힘입어 마침내 오늘 이 자리를 실현 하게 되었다.

자율적 규범 속에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보다 ‘시카고 스탠다드’

결국 공연 예술계의 미투 운동은 오랜시간 망가진 공연 예술 생태계의 자정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동의 소명의식을 예술가들 사이에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어디서 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막막하고 거대한 질문으로 다가왔다. 나는 스웨덴 여성 예술가들과의 대화 속에서 소위 문화 예술 선진국들의 성희롱, 성폭력 그리고 온갖 차별과 폭력에 대처하는 그들의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미국과 호주 뿐 아니라 영어권 150여개 국가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시카고 스탠다드를 알게 되었다.

시카고 스탠다드는 오디션 과정부터 연습, 공연 종료 시점까지 제작 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반영한 현장 백서로, 시카고 극단의 공동 대표인 로라 피셔(Laura T.Fisher)에 의해 만들어진 자율성을 전제로 한 실제적 규약집이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으며 각 지역, 문화, 작업 현장의 현실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단어 하나하나에 현장 예술가 이기에 가능한 통찰과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지난 2~3년간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시카고 스탠다드는 미국 전 주에 널리 알려지고 통용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로라 피셔는 워싱턴 정가를 포함한 미국 전역을 돌며 강의와 토론자로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는 즉시 미국 연극계 내의 지인에게 다리를 놓아 달라 부탁을 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 로라 피셔 본인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며칠 뒤, 약 2시간에 걸친 전화 회의에서 로라와 나는 시카고 스탠다드의 탄생 배경에서 부터 한국 미투 운동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결과 한국 현실에 맞는 미래의 코리아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 그녀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국제 포럼을 내년 2월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 하였다.

무모함에서 시작된 행동이 한국 뿐 아니라 나라 밖의 훌륭한 동료들과의 네트워킹으로 이어지면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한다.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 곳곳에서 분투 중인 수많은 예술가들과 연대하여 예술가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위력이나 불의 앞에 당당히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아직은 세계 그 어느곳에도 완벽한 안전 지대는 없어 보이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싸우고 있는 세계 각지의 예술가들이 존재 하는 한, 여전히 희망은 있다.

"Women... standing in the Light. Everybody can feel it. There is no going back.
The way forward is much more glorious than we can imagine. For everyone."

여성...빛 안에 서 있다. 모두가 느낄 수 있다. 후퇴는 없다.

앞으로의 전진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찬란하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²⁾

2) 미국의 배우, 안무가이자 예술 교육자 마리아 브룸(Maria Broom)의 말 인용

We stand together like sisters

스웨덴 예술가들의 공동미투 선언

수잔나딜버 Suzanna Dilber³⁾
스웨덴 공연예술연맹 배우부문 이사장

Hello everyone.

My name is Suzanna Dilber, and I am a Swedish actress. I am very happy and humbled to be here with you and get the chance to share my experience from the Swedish metoo-movement, since it is a bit different from both yours and most other countrie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잔나 딜버입니다. 스웨덴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웨덴의 미투 운동에 관해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미투 운동은 한국과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To begin with, I want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my country and what circumstances we work under, since I believe that this might be the key to why we decided to act the way we did. Sweden has been a social democratic country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20' s. Social democracy aims for greater democratic, egalitarian and solidaristic outcomes.

What this means in practice, is that we nowadays are considered both by others and ourselves to be one of the most equal countries in the world. The word “feminism” is not as charged in Sweden as in many other countries.

우선, 스웨덴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

3) 수잔나 딜버는 스톡홀름 예술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한 뒤 1998년부터 스웨덴 왕립 드라마극장과 스톡홀름 시립극장 그리고 Rikstestern(스웨덴 정부가 전국 투어 공연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극장)등 스웨덴 내 주요 무대를 오르며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프리랜서 배우이다. 2003년에는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작품에서 주연을 맡아 활약하였다. 또한 지난 20년동안 스웨덴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우로 명성을 떨치며 스웨덴 디즈니사의 보이스 연출을 맡아 일했다. 최근에는 스웨덴 국영방송국에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오디오 해설을 맡아 하고 있으며 2012년과 2015년 두 편의 소설을 출간하여 소설가로 등단하였다. 수잔나는 2014년-2018년 스웨덴 공연예술조합(Union for PerformingArts and Film)에서 노조위원으로 선출되었고, 2016년-2018년 스웨덴공연예술연맹 배우조합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하기로 결정했던 이유의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1920년대부터 사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더 민주적이고, 더 평등하고, 연대의 결과물을 지향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를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라는 시각을 우리 스스로,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여느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지 않습니다.

We have, until this week (we just had an election in September), had a government that is self-proclaimed “a feministic one” .The government uses the word to stress that gender equality is vital to society and that more needs to be done to achieve it. 12 of the 22 ministers were women.

우리는 이번주까지(우리는 9월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남녀평등을 지지하는 정부”라고 주장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말을 성평등은 사회에 필수적이며, 그 어떤 것보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사용합니다. 22명의 장관 중 12명이 여성이었습니다.

We have 480 days of paid parental leave where 90 days each are reserved for the mothers and the fathers and it is encouraged to share the rest equally, we have a society where living alone, getting divorced or having an unmarried pregnancy have no stigmas attached to them, and we have laws that make it forbidden to use violence as a mean of power or punishment, even in our own homes.

우리는 480일의 유급 육아 휴직을 갖습니다. 그 중 각 90일씩은 엄마들과 아빠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남은 일수는 공평하게 나눠지도록 권장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거나, 이혼을 하거나, 혼전 임신을 하는 것이 어떤 오명도 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과 처벌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Sweden it is possible to be sentenced to prison for spanking your children and it is considered rape to try to have sex with your wife if she is asleep. We are also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lowest gender pay gap in the world.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has been illegal since 1980. The Swedish Discrimination Act from 2009 demands that employers not only actively promote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but also take measures against harassment. The act also states that employees and job applicants who are, have been or will be taking parental leave may not be treated unfairly.

So, to summarize: we live in a country where #metoo should have been impossible. And still, it wasn't, and it isn't.

스웨덴에서는 자신의 아이라도 체벌을 하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인이 잠들었을때 성행위를 시도한다면 강간으로 간주되어 질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또한 전 세계에서 남녀의 급여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직장내에서 성차별은 1980년대부터 불법입니다. 2009년 스웨덴의 차별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는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괴롭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육아 휴직을 다녀왔거나, 앞으로 육아 휴직을 가져야 하는 피고용인과 구직자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metoo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다.

The Swedish cultural scene is of course a part of the mentioned and ruled by the same laws. But still, there has in fact been a different set of rules and laws by silent agreement. Men and women have never been treated equally on a stage or a film set. Men have always been considered more talented, funnier, more serious, more relatable, more likely to be a genius. Women are women, but men are human. Women have women's issues and tell women's stories, men are the depictees of humankind and human existential questions.

스웨덴의 문화 분야도 역시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고,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다른 법률과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무대 또는 영화 촬영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더 재능있고, 재미있고, 더 진지하고 더 관계적이고, 더 천재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This also means that a woman's worth is mainly decided by men, and mainly based on how desirable she is. A colleague of mine was told by a star actor that he had "fought" for her as his romantic interest in a play, since both the director and the producer feared she wasn't beautiful enough, though they all agreed she was a brilliant actress. The actor told her this with pride, thinking she should thank him for his being so open-minded. Of course, no one questioned whether HE was beautiful enough to play the male lead.

이것은 또한 여자들의 세상이 주로 남자들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자가 얼마나 바라는가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제 동료 중 한명이 남자 스타 배우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배우는 연극에서 그녀를 그의 로맨틱한 대상으로 하기 위해 "싸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그들 모두가 그녀가 재능있는 훌륭한 여배우라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연출과 프로듀서 둘 다 그녀가 충분히 아름답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남자 배우는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했고, 그녀가 그의 너무나도 열린 마음

에 감사를 표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가 남자 주인공을 하는데 충분히 아름다운 지에 관해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An older actor is experienced and should be admired, an older actress is considered a bit pathetic and unpalatable. On film we are often shown a male protagonist that is twice the age of his love interest. A woman his age would never be depicted as someone's love interest, she might maybe be someone's mother, or even grandmother. This is as true for Sweden as it is for the rest of the world. We have always known that our life span as an attractive artist is so much shorter than the men's. We even had a saying: "the middle-age ten". For an actress between the age of 40 and 50 there are very few jobs. After 50, if you're lucky, you can come back and be "the older character", the mother or grandmother. Men don't have this age gap.

나이가 많은 남자 배우는 경험이 많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나이 많은 여배우는 조금 감상적이거나, 불쾌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종종 사랑하는 연인보다 두배 나이가 많은 남자 주인공을 보게 됩니다. 그 나이의 여자는 누군가의 연인의 모습으로는 절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엄마 역할을 하겠죠. 또는 할머니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스웨덴이 세상 다른 곳과 다르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예술가로서 우리의 생명이 남자들에 비해 얼마나 짧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년의 십대라는 표현이 있을 지경입니다. 40대와 50대 사이의 여배우들은 거의 일을 갖기 어렵습니다. 50이 넘어서 운이 좋다면, 돌아와 "나이 든 인물"인 엄마 또는 할머니 역을 할 수 있겠죠. 남자는 이런 나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But yes, we have forces in action to change this, and they were there even before metoo. We have, after actively recruiting women to leadership programs, women leading several of the cultural institutions in Sweden. We have female directors, female producers and female writers. But they were still niched or didn't get as big funding as the men did. Even if a theatre on paper said it had 50% female directors during a business year, when you looked closer it always showed that the women did smaller plays on smaller stages and often directed children's plays. The prestigious plays and scenes were dominated by men. And even though we have had female executives, the structure didn't change. Some of them have been aware of the harassment but turned a blind eye or helped to hush incidents down. Some of them have abused their power themselves.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 행동을 하고 있었고, Metoo전에도 그러한 행동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웨덴 내 여성이 이끄는 몇몇의 문화기관의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에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여성 연출, 여성 프로듀서, 여성 작가들이 존재합

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틈새이거나, 남자들처럼 주류 기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연극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전체 사업 규모에서 여성 연출이 50%를 차지했다고는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자 연출들은 작은 무대에서 작은 규모의 연극을 연출했거나, 아동극 연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성있는 작품은 대부분 남성들의 차지였습니다. 여성 관료들이 있지만 구조는 좀처럼 변화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성희롱과 괴롭힘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모른 채 하거나,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 되도록 도울 뿐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To describe the ordinary day of a Swedish actress before metoo: We have always known that men have privileges we don't. As in the case with my colleague - we knew that we had to have men who root for us to be considered for roles. We knew we had to find men to root for us and at the same time protect ourselves. At one theatre it was a knowledge passed from actress to actress who you should not be alone with in the elevator, but rather take the stairs if you happen to come to work at the same time. This was spoken about rather openly between colleagues, but never in public. Many of the men who we did our best to avoid were well known and loved by the audience. We knew that there wasn't much to gain from speaking to a producer or the boss if someone crossed our boundaries, because the easiest way for them to get rid of the problem was to get rid of the woman. Plus, we had a misguided loyalty to the art and the audience not out these men, so we all became part of what we call a silence culture. The frustration was just our own to handle. The interesting thing about all this is that we considered it normal. We live in one of the most equal countries in the world, but still considered these old patriarchal structures normal. And in case "normal" means standard behaviour, well, they were.

미투 운동 이전 스웨덴 여자 배우들의 평범한 일상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특권들을 남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동료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는 남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응원하고, 동시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남자들을 찾아야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극장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혼자 있어서는 안되며, 되도록이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정보가 여자 배우에서 여자 배우로 전해 내려옵니다. 이것은 동료들 사이에서만 이야기 되며, 결코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피하고자 하는 많은 남자들은 잘 알려져 있고,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프로듀서 또는 대표에게 누군가 우리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성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러한 남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예술과 관객들에게 충성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침묵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좌절감은 우리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우리

가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오래된 가부장제의 구조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은 일반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When the Weinstein thing got public and hashtag metoo started spreading last autumn, many of us shared it on our facebook pages. A British colleague pointed out to me that the Swedish actresses shared the hashtag differently than they did in England. Many of us actually wrote down a situation where someone had sexually harassed us and finished the story with the hashtag instead of just sharing the hashtag. On Instagram, a Swedish tv-presenter and a journalist were publicly accused of rape by women who had worked with them. This exploded in national media.

작년 가을,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행이 공개되고, 미투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을때, 우리들의 대부분은 이 사실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한 영국 동료는 스웨덴의 여배우들이 자신들이 영국에서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해시태그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누군가 우리를 성적으로 괴롭혔음에 대한 실제 상황을 적어가며, 해시태그와 함께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시태그만을 공유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스웨덴 방송국 관계자와 저널리스트가 우리와 함께 일했던 여성들에 의해 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영 언론에서 폭발적이었습니다.

They were both very well respected and loved, but immediately were closed off from their workplaces. The problem with that was that their behaviour had been known for long. They had both been accused of misconduct several times by several co-workers, but in both their cases their executives had done nothing. They were both public figures and very bankable for their employers, which up until these public revelations had made them practically untouchable. A woman accusing them of any misconduct was most likely to lose her job or just not get her contract renewed.

그들은 둘 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직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오래동안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둘 다 여러 동료들에게 수차례 부정행위로 기소되었지만, 둘 모두 임원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적인물들이었고, 고용주의 입장에서 그들은 모두 돈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인 관계로 인해 그들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정한 행위를 고발한 여성은 대부분 직장을 잃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And this is where the Swedish metoo-movement started building up. Since these stories started to float around, a couple of our most famous film actresses were contacted by newspapers and asked to make a statement about metoo.

이것이 스웨덴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하자, 스웨덴의 가장 유명한 영화의 여배우 몇몇이 신문사들에 연락을 취해 미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One of them reached out to the others to talk to them first, knowing that if she shared her personal story publicly, it would only diverge the interest towards her and the man instead of the huge problem that existed on a structural level.

그들 중 한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공개하게 되면, 그것이 구조적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보여지기 보다는 남녀간의 사적인 이야기로 관심이 분산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They formed a hidden facebook group and decided to invite more colleagues to talk the whole thing through, before speaking to media. That started an avalanche. The invited actresses invited other actresses. In just one day the group grew exponentially into nearly 500 actresses in both theatre and film, sharing stories with one another in this hidden group. Some of the stories were old, some were new. They ranged from smaller harassment and power abuse to right-down rape and physical violence. It was like lifting the lid from Pandora's box. From the beginning on we felt a strong solidarity with one another, a sisterhood of sorts. It didn't matter how grave the things we had experienced personally were, or what position we had in the hierarchy of our business. What we felt very strongly was that we were all on the losing end of a structure that always favoured the men, even when it came to them doing criminal things and us just trying to do our jobs. We were all women in a man's world. This was something we couldn't get away from by being famous or well respected, it was everywhere.

그들은 미디어에 발표하기 전 페이스북 비밀 그룹을 만들어 더 많은 동료들을 초대해 그들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눈사태처럼 순간 커져갔습니다. 초대받은 여배우들은 다른 여배우들은 초대했습니다. 하루만에 그룹은 급속히 커졌고 연극과 영화에서 활동하는 500여명의 여배우들이 모여 서로 서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오래되었고, 어떤 이야기는 최근의 것들이며, 작은 폭력, 권력 남용에서부터 강간과 신체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자매와 같은 강한 연대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 얼마

나 끄찍한 것인지, 우리 분야에서 각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
다. 우리가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은 남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는 최선의 일을 해 나가
는데도, 남자들을 더 선호하는 구조의 끝에 놓여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들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명해지거나, 존경받는 것만으로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곳이 같았습니다.

The idea to speak out as one voice came fairly soon, since that was safer for all of us. It is
easy to discredit and cast suspicion on one woman speaking out, but so much harder to do
the same to nearly five hundred women.

하나의 목소리로 크게 발언하는 것은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의 공개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믿음을 떨어뜨리고 의심을 갖게 하기 쉽지
만, 오백여명 여성의 같은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We also knew that if we would name specific people and what they had done, we would end
up in the same place we did with the journalist and the tv-presenter: all the focus would be
on a few scapegoats instead of the structure behind that allowed for them to continue this
behaviour for years.

우리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저지른 일들만을 알린다면, 우리가 저널리스트와
TV 관계자에게 했던 지점에서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수년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보다는 오직 몇몇의 희생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
습니다.

That' s why we decided that our movement would not name anyone publicly, neither
perpetrator nor victim, all the testimonies would be anonymous on both ends. This was also to
underline how common the problem was. We also decided that no one should speak publicly
on behalf of the group, everyone who spoke to the media would only speak for oneself. All
in the purpose of keeping the group blameless and not become a mob.

따라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누구의 이름도 명명하지 않는 방식의 운동을 결정했습니다. 가해자
도 피해자도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고, 모든 증언은 익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러한 문제가 얼마나 일반적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느 누구도 단체를
대신해 공개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언론에 발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자신
만을 위해 발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무고함을 유지하고 모두가 폭도가 되지 않기 위함이었
습니다.

We were very firm on placing the blame on executives, producers and directors – the people that both had the power to take action against harassment and were obligated by law to do so. Since Sweden has this Discrimination Act that clearly states the employer’s responsibilities and demands that every workplace has policies on how this is going to be done, we could say with clarity that this law was being broken regularly. One more thing is that we stated clearly that we were no longer going to protect these men, nor were we going to feel ashamed. We will put the shame where it belongs – not with the victim, but the perpetrator and his enablers.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성폭력 문제에 대해 법률에 따라 조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영진들, 프로듀서들, 연출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차별행위 법률은 고용주들의 책임과 모든 일터에 이러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자주 지켜지지 않고 붕괴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명확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남성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 수치를 느끼지도 않겠다는 점 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와 그들의 조력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We collaborated with a well-renowned female investigative journalist on one of the largest daily newspapers in Sweden and wrote an article where we included several of the testimonies from our hidden facebook page, anonymized. The headline was: “We have had enough of sexual violence” and it was signed by 457 actresses. We gave our appeal a hashtag of its own: #tystnadtagnig, which is the phrase used on film sets before shooting, it means “silence-action” .

우리는 스웨덴의 가장 큰 일간지의 저명한 여성 탐사 저널리스트와 협업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에는 페이스북 비밀 그룹의 몇 증언들이 익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우리는 성폭력에 충분히 시달렸다.” 였으며, 457명의 여배우들이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해쉬태그 #tystnadtagnig로 우리의 외침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해쉬태그는 영화 현장에서 촬영 전 사용되는 것으로 “침묵-행동” 을 의미합니다.

The article was published online on November 8th last year and there actions were immediate and full of shock and disbelief. The minister of Culture and Democracy took action the sameday and summoned the executives of our national theatres. Our trade union, the Union for Performing Arts and Film, immediately spoke out and established a commission to investigate the issue together with the employer’s organization Swedish Performing Arts Association. In the days after, TV and newspapers overflowed with theatre and film executives. Some claimed to have known nothing and that they would obviously had acted

immediately if something had occurred. Others acknowledged that the problem existed, but said it was due to a few reoccurring perpetrators, the unrestrained stars and “geniuses” .

기사는 작년 11월 8일에 온라인으로 발표되었고, 반응은 즉각적이고 충격과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화민주주의 장관은 같은 날 조치를 취했고, 공공극장들의 경영진들을 소집했습니다. 우리의 노동조합인 공연예술, 영화 조합은 고용주들의 기관인 스웨덴 공연예술 협회와 함께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즉시 발표했습니다.

그 날 이후 TV와 일간지에는 연극과 영화의 경영진들로 넘쳐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만약 알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몇몇의 가해자들,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스타들 그리고 “천재들” 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A few executives were completely with us from the beginning and admitted that there was a structural problem. One of the female executives admitted to being a victim herself. During the same time more and more actresses contacted the newspaper to sign their name in solidarity on the article for the paper issue that was released Sunday 12th.

The group was already before the public ation of the article working on the next part, which was reading soft heanonymized testimonies, which we did a week later in several theatres around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Politicians and all the people with power in our business were invited to listen, and on the reading in our capital Stockholm, even the Queen and Crown Princess were in the audience.

몇몇 경영진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여성 경영진 중 한명은 자신도 피해자임을 시인했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여배우들이 언론사에 연락을 했고, 12일 일요일에 발표한 기사에 연대하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룹은 기사가 발표되기 전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주 뒤에 스웨덴의 몇몇 극장에서 동시에 익명의 증언들을 낭독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우리 분야의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낭독회에 초대되었는데, 여왕과 공주들도 객석에 자리했습니다.

So, why didn't we go after the perpetrators, you might ask? Well, we did. We just didn't do it publicly. Several men were reported to the police, but this was done quietly and without media's knowledge. The group offered support and company to every woman that had been victimized if she wanted to report the incident.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가해자를 추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은 질문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몇몇 남자들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알림 없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룹은 사건을 알리고 싶어하

는 모든 피해 여성들을 지원했습니다.

Several men were also closed off from their workplaces following those reports or reports to workplace executives. But we strived to keep the reports from the media since our focus was on the structure. The structure is a bigger enemy than any perpetrator. What happens to one specific perpetrator of course matters to the one or ones victimized by him. But what happens to the structure that either allows or stops allowing men to behave like that, matters to all of us and the future generations to come. It has a bigger impact.

이러한 알림 또는 직장 내 경영진들에게 알려짐에 따라 몇몇 남성들은 퇴출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둔 것은 구조의 문제였기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신고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 구조는 어떠한 가해자보다 큰 적입니다. 특정한 가해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그에게 피해를 받은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구조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와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But the most powerful effect of our chosen method was that group after group of women in different professions followed in our footsteps and claimed the same structural problem with sexual violence in their workplaces. They had also formed hidden facebook groups and gathered anonymous testimonies that were signed collectively.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방법의 가장 큰 효과는 다른 분야의 전문 여성 그룹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 그들 직업 분야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그들 또한 페이스북에 비밀 그룹을 만들어 개별적으로 서명한 익명의 증언들을 모았습니다.

A few days after our article came 700 opera singers. Then came nearly 6000 lawyers. Then over 2000 from the music industry. Then technicians, construction workers, journalists, teachers, athletes, dancers, psychologists, academics, firefighters, soldiers, restaurant staff, social workers, comedians, police officers, priests... Well, I can't name them all, because in the end there were appeals done the same way as ours from 65 groups of women. One of the groups were female politicians, some of them were part of the Swedish government. And that made it impossible to say that the problem was just a few reoccurring "genius" perpetrators in the arts. We had thousands of women from all over Sweden in 65 different professions saying that this is very clearly a structural problem, and that our self-proclaimed equal society still has a long way to go when it comes to true equality and women's safety. On the positive side, thanks to our society being as equal as it is and wants to be, our appeals were immediately taken seriously by the people of power. Politicians took action,

executives took action, and the shock and disgust our stories brought about was honestly felt.No one had thought this could be possible in Sweden.

우리 기사가 발행된 며칠 후 700명의 오페라 가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000여명의 변호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음악 산업에서는 2000명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다음 기술자, 건설 노동자, 언론인, 교사, 운동선수, 무용수, 심리학자, 학자, 소방관, 군인, 식당 종업원, 사회복지사, 코메디언, 경찰, 목사들...그들 모두의 이름을 호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65개 여성 단체들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항소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단체 중 하나는 여성 정치인들이었고, 그들 중 몇몇은 스웨덴 정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이러한 문제가 예술계의 단지 몇몇 “천재적인” 가해자들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65개의 다른 직업 분야의 수천명의 스웨덴 여성들이 이것은 명백한 구조의 문제이고, 스스로 칭하는 평등한 사회는 여성의 안전과 진정한 평등에 도달하기 위해 가야 하는 여전히 멀고 먼 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평등하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우리 사회 덕분에, 우리의 외침은 권력자들에 의해 즉각적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정치인들과 조취를 취했고, 경영진들도 조취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들이 불러일으켰던 충격과 혐오들은 모두 정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웨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One more thing. We saw several groups of men speak openly about the problem and the need for change in the world of theatre and film. The majority of our male colleagues were agonized by the harassment and violence some of their peers put us through, and they backed our stories and wanted to be allies.For many of them the testimonies were a relief, even if it was a sad one. Many male colleagues went through a period of soul-searching and realising they were part of the problem. Not because they were perpetrators, but because they either didn' t see what was going on or didn' t think it was that bad.

한가지 덧붙이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연극과 영화계의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몇몇 남성 그룹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자 동료들은 그들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행한 폭력과 괴롭힘에 대해 괴로워했고, 우리의 이야기를 지지하고 연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에게 슬픔 이야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증언들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남성 동료들은 그들 스스로가 문제의 부분임을 깨닫고 자신을 찾아가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들이 가해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거나,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everal women received apologies from male producers, directors and colleagues for not stopping situations that were clearly over the line.

몇몇의 여성들은 남성 제작자, 연출, 동료들로부터 명확히 선을 넘었던 상황들을 멈추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았습니다.

But of course, we also saw people speaking out against us. Not just men, but also women claiming that it was all a feminist conspiracy, that this was all just bitter women who were not sought for in their professions and therefor wanted to get revenge on someone, or simply stated that this never happened but that these women were just being oversensitive to a friendly pat on the shoulder and deemed it violent. We have also seen both men and women speak on behalf of perpetrators and defend them, claiming their innocence.

하지만 물론, 우리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남자들뿐 아니라 여성들도 이 모든 것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억울해 하는 여성들에 의한 페미니스트 음모일 뿐이라고 하며, 단순히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으며, 그러한 여성들이 어깨위의 친근한 우정에 대해 민감하며 그것들을 폭력적으로 인식할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를 위해 발언하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남성과 여성들 또한 보았습니다.

Since we never named anyone publicly, we haven't had any lawsuits against victims from our group, but the woman who openly outed the journalist who raped her on Instagram is now accused of defamation by him. Our group has been blamed by proxy for a theatre executive who committed suicide, although he never was accused of any sexual misconduct. Several of the more prominent actresses in our group have received threats and hate mail. We had to close the hidden facebook group and open another because of threats and we still change the name of the group almost every week, to make it harder for a third party to find. But the positive effects outweigh the negative.

우리가 어느 누구의 이름도 공개적으로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룹의 희생자들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소송이 없지만, 인스타그램에 강간범인 저널리스트를 공개한 여성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룹은 성적 부정행위에 대해 전혀 기소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극계 중견 제작자의 자살 사건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룹 내에서 좀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여배우들은 협박과 혐오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협박으로 우리는 페이스북의 비밀 그룹을 폐쇄하고 다른 그룹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3의 단체들이 우리 그룹을 찾기 어렵게 하기 위해 거의 매주 새로운 이름의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큽니다.

Our group still exists, and even though none of us speak for us all, I can say that I for one feel that it's like having a supportive hand on my back. A lot has happened since last year.

In the beginning of this year we did another manifestation, this time it was on national tv during Guldbaggegalan, the annual official Swedish film awards ceremony. Representatives from our group have been doing political work. We have participated in meetings with the commissioner of equality and we have been special advisors for the minister of Culture and Democracy which has led to several proposals to fortify laws on harassment and deeper understanding of our conditions.

우리 그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중 누구도 우리 모두를 대변하지 않는다하여도, 나는 우리 그룹이 나의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손과 같다고 느낍니다. 작년에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 매해 국영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스웨덴 영화 시상식인 Guldbaggegalan에서 또다른 강력한 의사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그룹의 대표들은 정치적 활동에도 참여 해왔습니다. 우리는 평등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으며, 문화민주주의부 장관을 위한 특별 고문으로 활동하며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고 성희롱, 폭력 관련 법안을 강화 하는데 힘써왔습니다.

We have had actresses present at important meetings at the Swedish Film Institute, discussing amongst other things how funds are being distributed. Representatives from our group has also been invited to speak at seminars and schools.

But the most important work we do is probably the personal support. Whenever something happens to any of us, there is always someone to turn to. We had a situation this spring, where an actress had got the female lead in a film opposing a well-known actor who has previously victimized her. She spoke to the producer about this, and the producer suggested she could bring her husband to set for safety but wasn't prepared to act in any other way. So, the actress spoke to our group, and several other actresses that have also been victimized by the same actor spoke to the producer together, backing her story and saying that they could not expect her to seek comfort in bringing her husband to work when the problem was an actor with a track record of violence. And instead of trying to persuade her again, the producer actually released the actor from his contract and hired someone else. I am not sure, but I believe this has never happened before. Knowing that the group exists and can speak on behalf of someone makes it easier to report things, whether it's inhouse to a theatre executive or the police.

스웨덴영화협회 주최의 중요한 회의에 여배우들 초청하여 지원금 배분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그룹의 대표들은 여러 토론, 포럼 그리고 학교에 초대되어 발제와 연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때면, 언제나 누구든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봄, 어느 여배우가 영화의 주연을 맡았는데 그녀의 상대역으로 과거에 그녀를 괴롭힌 유명 배우인 가해자가 캐스팅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로듀서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프로듀서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남

편을 촬영장에 동행해도 좋다는 제안을 하였을 뿐,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배우는 우리 그룹과 그 문제에 대해 논의 하고, 논의 과정에서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여배우들이 그 여배우와 함께 프로듀서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지지하면서, 문제의 근원은 폭력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대 남성 배우이기 때문에, 여배우가 남편을 촬영 현장에 대동하는 것만으로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프로듀서는 그 여배우를 설득하는 대신, 문제의 상대 남배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배우를 캐스팅 하였습니다. 확실치는 않으나 제가 아는 한 이런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는 처음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연 제작 책임자 혹은 경찰에게 보다 쉽게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There can be smaller things, as well. An actress found out that her name was not to be on the poster, even though she played the female lead. She spoke to the group and got support to talk to the producers and claim her name should be featured, which in the end it was. I believe that knowing that the group exists make us braver and gives us greater chances to claim our rights.

뿐만아니라 이보다 사소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여배우는 자신이 주연으로 참여하는 작품의 포스터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그룹에 이러한 사실을 논의하였고, 우리는 즉시 그녀를 도와 담당 프로듀서에게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그룹의 존재가 우리의 용기를 북돋우며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도록 돕는다고 믿습니다.

Outside of the group things have also improved. The commission our trade union and employer' s organization established published a report in April this year with suggestions of ways to go forward. They have also established a mutual council for equality and diversity, to keep the question alive. In both organizations they now have a permanent item at all their meeting agendas: updates on the work agains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That means that the question is always on the table. The union has also kept a special e-mail-address they opened last November for seeking their help in case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그룹 밖의 상황도 개선되었습니다. 예술인 노조 및 고용주 조직 위원회는 올해 4 월에 보고서를 발표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들의 문제 의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등과 다양성을 위한 상호 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이제는 두 조직 모두 모든 회의 의제에서 업데이트한 성희롱 및 폭력 관련 내용을 영구히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우리가 늘 염두 해 두고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술인 노조는 지난해 11 월 성희롱과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열어 줬던 특별 신고 이메일 주

소도 그대로 유지해 두었습니다.

All the theatre institutions have reviewed their policies on harassment and how they assure that every employee knows where to turn if they are victimized. Several of them have started to read the policies out loud on the first day of rehearsal. In the film business, production companies have started to include phone number to safety representatives on every call sheet.

모든 공연기관은 모든 형태의 괴롭힘, 성폭력에 대한 정책과, 그누구라도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의 대처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 다수의 단체들은 이미 연습 첫날 이러한 정책과 규범들을 함께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영화계는 제작사들이 모든 연락망에 안전담당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biggest thing is probably that we already have got a new law of consent. In Sweden it is now no longer the victim of sexual violence that has to describe how and if she stated clearly that she did not want to have sex – it is the perpetrator that has to describe how and if he got consent. This might seem like a small thing in a world where most rapes are never reported, but all steps forward are important. It's the start of a change in attitude. There are of course still a lot of work left to do. Theatre groups and small production companies outside of the institutions still have bigger problems, since they aren't as much in the public eye. But I believe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our metoo-movement did for us was make us believe that the change we want is possible.

아마도 가장 커다란 변화는 우리가 새로운 법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는 점⁴⁾ 일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더이상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묘사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대 여성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면 '어떻게'에 대한 부분은 가해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강간이 신고된 적이 없는 나라에서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태도를 변화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제도권 밖의 연극 단체, 소규모 제작사들은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여전히 커다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 미투 운동이 해낸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변화를 원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감사합니다.

4) 출처 :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70693>

올 7월 1일 스웨덴에 일명 파타법(FATTA)이라 불리는 새로운 법이 발효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강간의 재정의입니다.

미국 <시카고 씨어터 스탠다드> 보고서

전강희 비평가, <독립예술웹진> 편집인

시카고 씨어터 스탠다드(CTS) - 2017년 12월

1. CTS에 대하여

CTS의 키워드

: 의사소통(communication), 안전(safety), 존중(respect), 의무(accountability)

CTS는 시카고에 있는 극단 대표들, 예술가들, 행정가들이, 2년간 자신의 시간, 경험, 전문성을 자발적으로 보태어 저술한 자료이다. 참여자들이 CTS 초안을 만들기 위해 1년 동안, 12번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거쳤고, 그 후 1년간, 20개 극장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로 CTS가 만들어졌다.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쉬운 연습 방법과 예술 환경 속에서 일상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창작환경이 안전하지 못할 때, 예술가와 예술, 두 가지 모두가 위태로워진다. 폭력적이거나 위협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공간은, 대처가 필요할 때, 예방 절차나 의사소통이 없으면 갑작스럽게 안전하지 못한 영역이 되고 만다.

예술가들은 학대나 안전하지 못한 행동에 대응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특히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힘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더 두려움을 느낀다. 예술가들은 큰 소리를 내어서 쇼를 망치거나 자신의 평판을 망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심한 학대 행위를 견디다 업계를 떠나기도 한다. 즉시 위협을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안전하지 못한 환경과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예술가와 관련 기관들이 자신의 일에서 진정성을 찾고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CTS는 예술을 정의하거나 각자 맡은 일에 우위를 두거나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 예술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한다는 인식과 이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자료다. CTS는 경험 많은 제작자와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만든 결과물이다. 다양한 형태의 극장, 조직, 예산, 환경을 가진 단체 수만큼, 적절하게 변형되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가 일터에서 차별에 반대하는 규정을 실행하고는 있지만, 극장의 경우 “일터”의 정의를 충족시킬 만한 규모가 있는 단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작은 극장은 이 규정으로 모두 다뤄질 수 없다. 시카고 극장들은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예술가가 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극장이 제공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다. CTS는 조합에 가입한 극장, 가입하지 않은 극장, 학교 극장, 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 모두에게 유용하다.

2. 배경

2015년 1월 15일, 시카고의 배우 Lori Myers는 “NOT IN OUR HOUSE”라는 SNS 문구를 만들었다. 유서 깊은 극장에서 자신을 성적으로 괴롭혔던 가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만들었다. 여러 정황으로 문제가 알려지게 되었지만, 큰 소리로 발언하기에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학대자와 다른 거대 커뮤니티의 보복을 두려워했고,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다. 다시 일할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 없다고 느꼈고, 생존자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웠다. 지역사회를 분열한다는 말을 듣거나, 가십거리로 전락할 것도 두려웠다. 큰 소리를 내지 않자,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상황이 통제되기를 바란 사람도 있었다. 이 극장은 이제 시작하는 예술가들이 언론이나 열정적인 관객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큰 소리를 낸 용감한 생존자들이 흐름을 바꾸었고, Not in Our House Chicago Theatre Community가 만들어졌다.

2015년 3월에 CTS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시카고의 배우인 Laura T. Fisher와 연극 예술가와 행정가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이 1년에 걸쳐 초안을 만들었다. 20개의 극장이 연극 연습에 CTS를 결합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했고, 계속해서 CTS를 개선해나갔고, 실행 전략들을 논의했다.

3. 강령

CTS는 모든 연극 프로덕션에서 참여자들이 의사소통, 안전, 존중, 의무를 스스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도구다. CTS의 강령은 다음 네 가지를 만들기 위함이다.

- 1) 인종, 젠더, 종교, 민족, 피부색, 능력을 따지거나, 성 구분을 근거로 괴롭히지 않는 공간
- 2) 스스로에게, 관객에게, 지역사회에 도전하도록 하는 환경,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위험한 상황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지지하는 환경, 모든 인류의 경험을 상징하는 연극을 만들 자유가 주어진 환경을 만드는 것

- 3)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글로 명시되어 있고, 점차 많아질 기준이 되는 항목들을 가지고서, 연극 환경을 실행할 수 있는 공통된 이해
- 4) 멘토십, 온라인 소통과 지역단체 봉사를 통해서 얻는 동료의 지지

CTS는 협정서나 계약 관련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기관에 따라 기준들, 예방책들, 해결절차들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CTS는 더 많은 경험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4. 구체적 기준

<오디션의 경우>

1) 오디션 공지와 제안

오디션 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배우에게 요구할 역할과 이미 캐스팅된 역할
- 특별한 장애가 있는 캐릭터를 묘사하는 역할
- 오디션에서 행하는 활동의 성격 (연극, 안무, 즉흥, 독백 등)
- 무대 위 싸움, 대담한 물리적 기술, 전신 노출, 부분 노출, 성적인 내용, 받아들일만한 고위험 활동
- 예비 참여자가 앞으로 오디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없이 오디션을 거절할 수 있다는 선언
- 오디션 기록 여부
- 연출가, 캐스팅 관계자, 제작자 이름

2) 오디션

- 우리는 오디션을 보기에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금연 환경, 충분한 빛과 알맞은 온도가 있는 깨끗한 공간, 춤을 추거나 싸움 장면을 구현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닥 등)
- 우리는 예비 참여자에게 한 프리덕션에서 3개 이상의 오디션을 보도록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 오디션은 3시간을 넘겨서 진행되지 않아야 하고, 오후 11시를 넘겨서는 안된다.
- 대본 같은 필수 자료는 오디션 공간에서 제공될 것이다.
- 우리는 오디션 공지에서 예고하지 않았다면, 예비 참여자에게 오디션의 일부로 폭력이나 성적인 접촉을 수행하도록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 오디션에서 요구하는 물리적인 접촉은 공개된 공간에서 안무로 짜일 것이다. 배우들은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접촉을 즉흥으로 구현하도록 요구받아서 안된다.
- 우리는 예비 참여자들에게 오디션에서 탈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 캐스팅 관계자는 예비 참여자에게 보내준 자료를 검토했고, 오디션 공지의 요구사항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 공지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면 오디션은 기록되서는 안된다. 만약 기록자료가 만들어진다면, 자료가 캐스팅 관계자들 사이에서 사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캐스팅이 완료되면 없애겠다는 서면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필요시 통역자가 있도록 하고, 접근 가능한 시설에서 오디션을 보고, 장애가 있는 예술가에게 미리 오디션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안들을 꾸준히 만들 것이다.
- 발표는 모든 오디션에서 공지로 게시하거나 답신전화로 알려야한다.
- 예비 참여자는 오디션이나 캐스팅 제안을 거부할 수 있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3) 필수 공개 사항

- 폭력, 성적인 내용, 달라진 안무 장면이 오디션의 일부인 경우
- 언더스터디가 프로덕션에 포함될 것인지
- 오디션 공간에 누가 있는지
- 오디션이 기록될 것인지
- 답신 전화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지

<계약의 경우>

1) 우리는 참여자들에게 각 프로덕션별 상호 기대치를 설명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계약은 참여자가 직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프로덕션에서 참여자의 역할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2) 필수 공개 사항

- 보수: 급여, 사례비 등을 참여자에게 지급할 액수와 일정
- 책임: 참여자의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 일정: 시작일, 리허설이 낮인지 저녁인지, 주당 연습 시간, 기술 연습 날짜와 시간, 연장 가능성

<누드, 폭력, 움직임, 신체극을 포함한 안무의 경우>

1) 편의

- 응급의료도구, 냉찜질 포함

- 사고 보고 양식
- 물
- 긴급할 때 사용 가능한 전화
- 무대 위나 밖의 적절한 조명
- 온도 조절 가능
- 환기
- 준비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잘 관리되고, 적절한 바닥
- 코너나 위험한 구석에 패드나 야광 테이프 붙여놓기
- 책임 보험 증명서

2) 장비, 무기, 특수 의상

- 요구되는 안무에 적절할 것
-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가가 설치할 것
- 사용 전 숙달된 기술자가 보수, 검사할 것
- 장비를 사용할 배우가 사용 전에 관리할 것
- 사용할 사람만 다루기

3) 프리퍼덕션과 오디션

- 무기와 손을 이용한 전투, 성폭력, 특수 움직임 기술, 유사한 고위험 활동이 있는 프리덕션에서는 디자이너나 안무가가 있어야 한다.
- - 디자이너/안무가는 해당 프리덕션의 연출가나 배우여도 좋고, 아니라도 괜찮다. 참여자 모두와 분명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디자이너/안무가는 프리덕션 과정에 가능한 빨리 참여해야 한다.
- 오디션 볼 때 예비 참여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
- - 컨셉을 알아차리게 하는 특수 움직임이나 신체극의 특성이 바뀔수도 있다. (무기, 몸싸움, 성적인 폭력, 구르기, 공중 아크로바틱, 춤, 요가 등)
- - 가능하다면 디자이너/안무가의 이름과 전문적인 경험치
- 오디션을 볼 때 예비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 능력과 안무와 관련있는 제한 사항/부상 여부를 정확하게 제공할 것을 요청받아야 한다.

4) 리허설

- 디자이너/안무가는 캐스팅된 사람들에게 첫 리허설에서 소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바로 직후도 괜찮다.
- 모든 안무 리허설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
- 안무 리허설에 앞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준비운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 안무와 움직임 기술을 가르침 받고, 리허설 하고, 적용해볼 적절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 리허설이 끝날 무렵, 열을 식히고, 질문하고, 문제점을 말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배우, 연출가, 안무가, 무대 매니저가 계획된 활동(키스, 타격, 춤 등)의 필수 사항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면 참여자들에게는 합의된 경계 안에서 머무를 책임이 생긴다.
- 안무가는 리허설 때 진행해볼 안무를 정확히 정하고나면, 무의식적으로도 바꾸어서는 안된다. 안무가는 안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무대매니저나 디자이너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 안무는 필기나 비디오 녹화로 기록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은 배우나 안무가가 안무를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 리허설 시작 때 안무 런쓰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점은 쇼가 시작되기 전에 특히 중요하다. 연습은 정신을 집중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적절한 빛이 있는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배우는 리허설 전, 중간, 후, 어느 때건, 부상, 불편함, 피곤함을 느낄 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몸을 움직이는 80분 작업 후 10분 휴식이 배분되어야 한다.
- 연출가/안무가와 배우는 안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합의를 내려야 한다.
- 규칙적인 리허설 보고서는 디자이너/안무가에게 보내져야 하고, 안무를 완성하기 위해 변경하거나 발전시킬 사항이 있다면 메모가 전달되어야 한다.
- 리허설 공간에서는 알맞은 기온이 유지되어야 한다. (노출의 경우에는 더 따듯하게, 강도 높은 신체활동의 경우에는 더 시원하게)

5. 구체적인 문제

<폭력>

무대 위 폭력은 밀치고, 때리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싸움 장면과 성적인 폭력 장면을 공들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퍼포머가 폭력을 재현할 때 일상적으로 고통, 멍, 다른 부상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의도는 무대 위 폭력의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성적인 내용과 노출>

성적인 내용(Sexual Content)과 노출(Nudity)이 있는 장면에서 예술가들은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이 안전하고, 지지를 받고, 편안한 환경에서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싸움 장면에 이용되었던 세부사항들을 성적인 안무가 있는 장면에도 적용하였다.

1) 프리프리덕션과 오디션

- SC/N은 어떤 오디션에서도 필수적이지 않고 요구되어서도 안된다.
- 노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은 적어도 18세여야하고, 오디션 현장에서 나이를 증명해야한다.
- 프리덕션의 일부로서 SC/N을 연기할 것을 요구받은 배우는 오디션을 볼 때에 SC/N을 연기하는 것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한다.

2) 리허설

- SC/N 장면을 연기하기에 앞서, 배우, 연출가, 안무가, 무대 매니저가 내용을 논의해야 하고 리허설을 위해 동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장면 리허설을 하기 전에 동의 사항을 확인하고 경계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를 논의해야 한다.
- 초기 리허설은 공개되지 않고, 장면과 관계있는 참여자들만이 참석한다. 관련된 무대 매니저, 연출가 배우들이 동의한 이후에 공개된다. 무대 매니저는 모든 리허설에 참석해야한다.
- 무대 매니저는 동의 내용과 성적인 안무의 세부사항을 기록해야한다.
- 누드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들은 리허설이 아닌 경우에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
- 배우들은 오디션 발표 후에 추가된 SC/N 요소들을 거부할 수 있다.
- 노출하고 있는 배우들은 리허설, 테크, 공연 도중 사진을 찍히거나 비디오로 녹화되어서는 안된다.

3) 테크

- 테크니컬 리허설 동안 노출은 정말 필요할 때로만 제한된다. 노출이 필요하지 않을때에는 피부색 옷이나 겹옷을 입는다.
- 테크니컬 리허설은 SC/N 장면의 경우에는 방문객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 무대 매니저는 노출하고 있는 배우를 위해서 가시나 거친 모서리처럼, 신체적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게을리서는 안된다.

한국영화계 미투운동의 흐름

이화정 <씨네21> 취재팀장

<씨네21>은 2016년 10주간 ‘영화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로 촉발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나누고자 하는 의미로 영화인들과 여성, 소수자의 인권 침해와 그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담 자리를 가져왔다. 여성감독, 여성배우, 여성학자, 여성 수입·배급·홍보·마케팅 분야의 여성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남성 영화인들과도 토론을 가졌다. 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례들이 공론화되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이 이루어졌다. 대담을 진행하며 현장을 비롯한 영화계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아카이빙해왔다. 영화계는 수십명의 창작자와 준창작자들이 모여 오랜 기간 맞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공동작업의 특성이 있는 집단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 경각심이 요구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취재 과정에서 우리가 들은 많은 영화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현장은 무방비상태였다. 영화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여성의 인권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현장 밖에서도 영화 만들기라는 ‘권력’을 가진 자들은, 출연시켜주겠다는 암시만으로 여배우와 여성 스태프들을 수시로 불러내고 성추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제보받은 영화계_내_성폭력 현황은 넓고도 뿌리 깊었다. 제보자들의 상당수가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도 “이 이야기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고 피해 사례를 들려주었다. 매일 아침, 피해자로부터 온 제보 메일을 여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컸다. 가해자들이 변명으로 일축하며 굳건히 현장을 지키는 반면, 피해자들은 수치심을 느끼거나 해당 현장을 떠나고 또 지금도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 <씨네21>은 그간 덮어두었던 사건을 공론화하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 여성 인권을 위한 작은 걸음이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제보를 받는 창구를 열어둠과 동시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하려 나선 여성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연대를 통한 작지만 확실한 발자국

‘#미투운동(#MeToo)’은 앞서 진행한 #영화계_내_성폭력’ 연속 취재와 같은 선상의 일환에서 논의되었다. 취재를 하는 동안 우리는 그것이 실명 비판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의 장벽은 높았다. 1년간 진행된 연속 대담에서 많은 참석자가 이니셜로 언급할 때 종종 등장한 가해자들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마땅히 그를 제지할 방법은 없었다. 피해자들이 선뜻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공통점이 존재했다. 캐스팅이나 채용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또 미투 발언을 하면 귀찮은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로 비쳐져 선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유가 작용했다.

이렇게 가해자들을 A와 B로만 폭로해서는 가해자들에게 어떤 경각심도, 처벌도 가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화계의 뜻있는 이들의 움직임이 점차 더해졌다. 이후 #미투운동과 함께 실명을 언급한 기사가 이어지면서 처벌과 자정작용이 함께 수행되는 바람직한 방향이 도출되었다. 그간 우리는 ‘조근현 감독 성희롱 사건 밀착취재’를 비롯해, ‘조현훈 감독, 2013년 영화계 뒤풀이에 동석한 여성감독 성추행’, ‘〈애자〉, 〈반창꼬〉 정기훈 감독, 연기학원과 촬영 현장에서 도를 넘는 성적 발언’ 등 영화계 현장의 불균형을 반영한 여러 여성 폭력, 비하의 현장을 팔로우 해왔다.

여성이 대상화되지 않을 때 성평등도 이루어진다

그중엔 여성배우들이 겪어온 폭력의 역사도 함께했다. 여성 혐오적 서사 안에서 여성 캐릭터가 성적으로 소비되고, 그렇게 잘못된 문화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로 굳혀지는 게 다반사였다. 여배우를 프로페셔널한 직업인으로 보는 대신 ‘현장의 꽃’으로 보는 시각은 여성혐오와 맥락을 같이하며, 영화 현장 곳곳에서 여성을 향한 억압과 차별의 수단으로 작용했다. 여성혐오가 만연해 있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도중 상대역인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사건이었다. <씨네21>은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는 긴급포럼을 열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명예훼손, 무고죄 등의 명목으로 2차 피해를 당하는게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판결이 지니는 의미가 영화계 성차별 해소에 끼칠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4년여의 지난한 법정공방 끝에 재판부는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직 법정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승소는 ‘영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희생을 강요했던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중요한 사례로 남았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씨네21>과의 인터뷰에서 “베드신이나 강간 장면의 경우 액션과 리액션에 대한 철저한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촬영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소통과 배려의 과정이 쉽게 간과되어왔다.

하지만 판결문은 영화를 찍는 행위가 사회의 기본 법규를 벗어나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말한다. ‘연기’와 ‘연기를 빌미로 한 강제추행’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영화 현장에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반민정 배우는 “배우를 꿈꿔왔고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이 따를 줄 알았다면 배우를 하기 전으로 돌아갔을 거”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판결직후 “제가 살아낸 40개월의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며 용기를 낸 이후를 말했다. 영화계 내 미투 운동이 일어날 당시 ‘침묵한다’와 ‘동참한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제보자들 역시 “지금도 떨리고 무섭지만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더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고 용기를 낸 이유를 말한다.

영화계 성평등 인식의 변화

#영화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부터 #미투(#MeToo) 운동에 이르기까지 영화계에서 묵과해온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점차 영화계에서 자성의 움직임도 거세졌다. 영화 <견기왕>은 남순아 감독의 주도로 촬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이제 영화 현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씨네21>의 ‘#영화계_내_성폭력’ 기사에 대한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입장문을 통해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영화계 성폭력 사례들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입장문을 발표했고, 그와 함께 조합 내에 특별 기구를 만들 것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또한 ‘조합원 중 성폭력을 행한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질 경우 공개적으로 조합원 자격 박탈 및 제명할 것’을 약속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단체 설립도 이루어졌다. (사)여성영화인모임이 운영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 지난 3월 1일 개소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임순례 감독과 함께 센터장을 맡은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씨네21>의 #영화계_내_성폭력 특집 기사와 영화인들과의 연속 대담도 많은 동기 부여가 됐다”고 전했다. 든든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상담 및 조사·피해자 지원,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정책을 제안하고 실태 조사에 나섰다.

성폭력, 성차별 문제에 관한 한 이제 영화계는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영화계에서 #미투 폭로가 유독 활발해 보이는 이유도, 이곳이 다른 분야보다 사건의 온상이라서가 아닌, 적어도 스스로 자정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콘텐츠를 만드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양심, 윤리적인 태도가 결국 한국영화의 바람직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는 때이기도 하다. 물론, #영화계_내_성폭력에서 #미투운동까지 지난 2년간 우리가 주목한 시간을 돌아보면 아직도 고

민해야 할 지점이 많다. <씨네21>은 이에 대해 활동가들을 통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들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그들은 ‘피해자상’을 요구하는 언론의 비뚤어진 접근, 단독, 독점이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폭력적인 태도, 유명한 가해자, 피해자 취재를 우선시하는 접근 등 언론의 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 성폭력으로 인해 작업을 그만두고 소송을 하는 피해자들의 당장의 경제적 지원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미투 제보, 창구는 열려있다

현재 <씨네21>은 metoo@cine21.com를 통해 영화계 내 미투 제보를 받는 동시에, 한국영화성평등센터와 함께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로 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씨네21>에 제보한 피해자는 필요 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상담 및 법적·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든든에서 상담을 받은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할 경우, 협의 후 <씨네21>에서 기사화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 사회는, 영화계는 절대 #미투운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다.

부산문화예술계에서 반성폭력운동을 한다는 것

송진희 예술가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활동가

2016년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해시태그운동에서 미투운동까지

2016년 sns를 중심으로 00계_내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고발이 장기간 이루어졌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작가들부터 예술계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 성추행피해의 내용들이 실시간 sns타임라인을 채웠다. 가해자 한명에 대한 고발이 올라오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적으로 고발하는 형식으로 급속도로 번져갔다. 해시태그운동의 대부분은 sns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가해자들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피해자들이 전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서 피해고발을 하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은 미투 운동을 통해서 달라진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은 돌이켜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사건이 일어나고 문화예술계 내에 법과 정책, 제도를 살펴볼 때, 성폭력 가해행위자에 대한 배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술가들의 권리보호, 성 고충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 한 줄도 명시된 곳이 없었고,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sns고발운동이 이어지던 3개월쯤 양상은 변해갔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처음에 공개 사과를 하고 난 뒤, 명백한 증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를 이용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했다. 또는 사과를 반복하며 본인이 억울하고 결백하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다. 당시 문화예술계 성폭력 해시태그운동이 서울의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었고, 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몇몇의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역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침묵보다 변화를>이라는 선언문을 쓰면서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서울에서도 예술분야별로 조직된 예술가들이 긴급한 성명서를 내고 팀을 구성하고, 예술인연대를 조직하여 직접적인 해결의 현장에 뛰어들게 된다. 이런 동시다발적이고 발 빠른 움직임은 지역에서 반성폭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 동력들을 가시화하고 반성폭력 운동으로 나아갔던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1. 부산문화예술계 성차별, 성폭력 말하기 페이지를 열다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하여 공론화 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했다. 얼굴과 실명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성차별, 성폭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우선은 해시태그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고발페이지를 열었다. 부산에서는 피해고발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10명 정도의 예술가들이 용기를 내서 참여하며 외부에서도 연대 글로 보내오기도 했다. 피해에 공감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함께 분노하는 분위기도 존재했지만, 고발페이지의 운영만으로도 반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실여부가 판단이 안 된 글을 sns올려서 되겠냐, 이런 분위기가 문화 판을 더 위축시킨다. 이제부터 여자작가들 전시는 없을 거다. 성폭력 얘기는 이제 끝물이다. 성폭력얘기 그만하고 이제 작업을 해라. 작가는 작품으로 승부를 보아야한다” 고 발 글을 올린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가해자와 가해자주변에서는 피해자를 수소문을 하여 전화를 걸고 회유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다. 관련내용에 ‘좋아요’ 를 누르면 페미니스트냐 라는 질문이 돌아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말과 행동들이 예술현장을 떠돌았고, 용기를 내려고 했던 예술가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었다. 용기를 낸 피해자와 예술가들에 대한 지지보다는 해시태그운동과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분위기가 초창기에는 압도적이었다. 지역예술계, 혹은 공동체에서 성폭력피해를 이야기할 때 어떤 태도로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무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무지가 연대보다는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성폭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너무도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반성폭력운동을 시작한 예술가들이 더 나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이 우리 곁에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지워져왔었는지 알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예술계 내에서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판단을 한 뒤, 소수의 지지자들을 찾아나서는 방식으로 반성폭력에 대한 목소리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모임을 몇 회 진행하면서 작지만 내실이 있는 연대를 모색하였다.

백래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익명성과 조직화

활동초창기에 예술가 개개인들의 실명을 오픈하고 활동을 했다. 개개인이 위협해지거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함께 활동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익명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처음 실명을 드러낸 예술가들이 반성폭력 운동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떠오르면서 겪는 따가운 시선들에 대한 무게감이 있었다. 그래서 개개인이 감당하는 구조보다는 조직이 필요했고, 쉽게 공격 받지 않기 위해서 역시 조직이 필요했고, 공식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조직이 필요했다. 조직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실제로 익명의 다수가 활동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전환되면서 개개인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조직적 움직임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으로 서서히 변화되었다. 미술가그룹 <게릴라 걸스>는 아직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고릴라가면을 쓰고 남성중심적인 예술에 대해서 비판

하며 페미니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을 한다. 그 배경에는 실명이 공개될 때 개개인들에게 돌아오는 백래시를 예상했기 때문이며, 운동의 지속성을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우리는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활동가이자 고발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술계에서 작업과 활동을 이어나가는 예술가이기도 하다. 예술계 역시 공동체이고 커뮤니티 형성되어 살아가는 곳이다. 더불어 좁고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곳에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가 뒤섞여있다. 예술계에서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동시에 반성폭력운동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부고발자, 과격한 페미니스트, 예술가로서 생명이 끝난 것으로 낙인화되는 일이다. 부산문화예술계에서 반성폭력운동을 한다는 것은 성폭력문화와 싸워나가는 과정이자 동시에 내부의 표적으로 호명되고 이미지화되는 구조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버티고 살아남아야 하는 일임을 체감한다.

문화운동을 통한 반성폭력 활동으로 나아가기

초창기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한 성폭력 고발페이지와 성폭력사건 대책위활동 이후, 직접적인 피해고발과 지원을 부산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신고창구>를 성폭력상담소에 열었다. 동시에 반성폭력운동의 방향을 문화예술계 성폭력 out!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문화적인 무브먼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첫 행동은 역사 속에 존재했고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페미니스트 아티스트들의 코스튬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이곳의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말하기<페미니스트 예술가들의 행진>이라는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예술계 반성폭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 부산국제 락페스티벌에서 벌어지는 성추행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슬랩은 과격하게 손은 조신하게>라는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이에 동참하는 참여자들과 함께 락페스티벌 내에서 반성폭력 캠페인을 벌였다. 성추행이 주로 일어나는 슬랩존 일대에 <페미존>을 구성하여 서로가 서로의 안전지대가 되어 즐거운 락페스티벌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를 전했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계 성폭력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들의 말하기는 끝나지 않았다>, 대학 내 성폭력문제와 연대하여 <그것은 성폭력입니다>집담회를 열었다. 문화운동을 기반으로 반성폭력이 나아가고자 했던 것은 우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액션이고, 동시에 예술현장에서 성폭력을 반대하는 개개인들이 위축되지 않는 배경의 역할이 되고자 했다

잠잠해지던 불씨 속에서 되살아난 목소리: 미투 운동으로 이어지다

2018년 1월에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운동은 잠정적인 해산과 중단을 결정하게 된다. 내부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성폭력운동을 해나감에 있어 소진된 정신과 체력, 예술 활동과 반성폭력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문제, 자원부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있었다. 운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지현검사의 미투가 시작되었고, 우리에게서는 한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오래전 일이고, 당시 제대로 해결조차 되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서 지금까지라

도 해결하고 싶다고 도움과 연대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메일이었다. 피해자는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답만 여러 차례 받은 상태였다. 메일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소진된 활동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지 두려웠다. 하지만 반성폭력운동을 하면서 우리 역시 벽을 만날 때 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게 피해자의 메일한통이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비를 하여 미투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부산문화예술계에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밖으로 나왔다. 부산의 연극계, 영화계, 미술계, 예술 공공기관, 예고 스쿨미투, 예술 대학등의 미투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산의 문화예술계 반성폭력운동에서 먼저 주력한 것은 정책제안과 피해지원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100일 신고센터, 특별조사단을 통한 신고와조사가 진행되면서 부산에서도 정책과 제도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부산성폭력 상담소와 함께 부산시에 문화예술계 성폭력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여덟 차례 회의를 거쳤다. 이 회의과정을 통해서 성폭력실태조사,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특별대응센터> 4개월 운영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다. 해시태그운동을 통해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자체적인 연대의 어려움을 느꼈다면, 미투운동을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 문화를 대표하는 여러 기관과 예술대학의 인권센터 등 미투 이후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곳에서, 기존의 규정과 법을 근거로 이행하며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행정적이고 관료적인 태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목격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계속된 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특별대응센터>는 10월 말까지 운영예정이고 이후의 대안 역시 명확하지가 않다. 예술계 내에 대응센터가 공식적인 기관으로 존재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한 안전한 장치의 역할을 마땅히 해주어야 한다.

현재는 예술인 세 명이 대응지원 및 정책관련 사안, 간담회 및 집담회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들의 소진을 막고, 다시 예술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열정 페이가 아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이후의 반성폭력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다.

2. 우리가 바라는 미투 이후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투’ 라는 말 옆에 ‘위드유’ 라는 말이 함께 서있다. 피해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하겠다는 이 연대의 의미는 해시태그운동 때보다 더 강력했다. 부산에서도 피해당사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인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말하기 자체의 무게를 이겨내고 용기를 낸 피해자들에게 존중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사회를 기대했지만 말하기 이후, 2차 피해와 백래시를 매번 헤쳐 나가야하는 상황은 좀처럼 낱아지지 않았다. 미투 이후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기대하면 성폭력사건 해결도 좋은 선례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했다. 부산문화예술계 대응센터를 통해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대응’ 이라는 표

현을 쓰게 된 배경도 성폭력문제해결에 있어서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부산 문화예술계 피해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90%정도가 사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가 집중적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이 많고, 예술계 성희롱의 경우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으며, 예술계는 대부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소속이 없는 경우 가해행위자에 대한 강제성 역시 없다. 또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도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건해결에 있어서 법적 기준이 해결의 중심이 될 때, 결국 다시 피해자가 고발을 감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은 반복된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사건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당사자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바라는 미투 이후는 피해자의 삶과 일상이 난도질당하지 않고, 자신의 피해가 부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이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미투 이후는 아직 오지 않은 썸이다.

3. 연대의 장이 서로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2016년 해시태그운동에서 미투 운동까지 부산에서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반성폭력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문화예술계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내가 겪었던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공감이자, 그동안 만연했지만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성폭력문화를 용인한 예술계 구조에 대한 분노가 큰 동력이었다. 또한 성평등 한 예술의 환경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그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로 서있고 싶은 강렬한 바람 때문이기도 하다. 피해자와 함께 싸운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을 위해 싸우는 일이기도 했다. 이 투쟁의 현장에 있다 보면 안전장치가 없는 공간에서 거센 바람에 버티고 저항하며 서있다는 감각적 증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 그런 순간마다 어디선가 뻗어 나온 크고 작은 연대의 손길을 있었다. 우리의 용기가 되어준 피해당사자들의 용감한 말하기와 행동, 예술계 내 반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예술인연대의 활동가들, 부산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과 대학 내 페미니즘 모임, 크고 작은 반성폭력행사와 모임에 기꺼이 참여해주는 분들, 반성폭력의 의미와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소중한 예술계의 연대자 개개인. 어디선가 운동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 그렇게 서로의 안전장치가 되어서 손을 맞잡고 있다 보면 어느새 바람이 찾아든다.

물론 연대에도 수많은 이면은 있고 미끄러짐, 부대낌 어긋남이 함께 한다. 그 미끄러짐과 어긋난 연대의 조각을 이어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부산문화예술계 내에서 더 많은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연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투에서 발견한 연대의 힘

조한진희 다른몸들(준)

연대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저의 소개로 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페미니즘은 발화자가 서 있는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토론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90년대 학생운동을 하면서, 운동 사회 내 성차별 성폭력을 자각하게 됐고 페미니스트로 정체화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여성단체에서 직장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상담하는 상근자로 활동 한바 있습니다.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탈식민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이 강화 됐고, 팔레스타인 현장을 경험하면서 연대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 된 것은 영상 활동가로 살아왔던 정체성과 운동(진보)사회성폭력 대책위를 해왔던 경험들 때문인 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문은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미투 이후 혹은 연대를 상상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 연극이 시대의 거울이라면, 비출 수 있는 빛이 있었던 것

올해 초 이윤택, 오태석 등에 대한 미투가 뜨겁게 발화 됐을 때를 기억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랬듯 저 또한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지냈을 시간을 떠올리며 분노와 한숨을 오갔습니다. 이후 신문이나 방송에서 “연극계에는 왜 성폭력이 많은가”, “문화예술계에는 왜 성폭력이 많은가” 라는 내용을 볼 때 마다 다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의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고, 나쁜 질문입니다. 현실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대안을 찾기에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연극계 뿐 아니라, 한국 사회 모든 곳에 성폭력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것의 차이이고, 분야별로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물론 특정 분야에 성폭력이 약간 더 많을 수도 있겠으나, 어느 분야에 성폭력이 더 많은지를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런 질문을 가장한 의견이 미치는 악영향은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 분야의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피해자 혹은 방관자라는 낙인이 부여되거나,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부정적 의미에서)지독한 여성이라는 수식이 붙기 쉽기 때문입니다.

#00계성폭력부터 #미투에 이어지는 흐름을 보며, 연극계가 반성폭력 운동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문화예술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내심 생각했었습니다. 역시나 문학, 사진, 미술, 영화, 무용계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있어왔지만 연극계(성폭력반대 연극인 행동)만큼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많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작업 형태의 특성과 공동체적 문화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연극계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더 무거운 것은 아닐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연극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미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니었을까요.

반사경이 있다한들 빛이 없으면 비춰지지 않듯, 청자와 연대자에 대한 일말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미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들이 끈끈하게 모여 지금까지 연극계 반성폭력 운동을 진전시키는 모습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 500개의 점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공의 의미

스웨덴에서 500명이 공동으로 가/피해자를 익명으로 한 미투를 진행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제문을 보니 단순히 그 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략은 최소한 세 가지 점에서 매우 뛰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와의 싸움으로 직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을 때 흔히 벌어지는 상황들은 피해자가 여성배우였을 때 더욱 강화되기 쉽습니다. 즉, 초점이 유명한 소수의 가/피해자들에게 맞춰지거나, 연애나 치정문제로 미끄러지거나, 꼬리 자르기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모두 단칼에 차단하기 위한 명민한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투쟁 동력의 소진을 최소화 했다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그 500명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미투라는 전장에 기꺼이 참여한 전사입니다. 그들의 고발이 연애나 치정 문제로 회자되고, 역고소를 당하는 것은 피해자로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구조와의 싸움을 함께 할 동력이 소진되는 일이며, 잠재적 미투 참여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싸움에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고, 투쟁 동력 소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500명의 여성 배우들 이후에, 700명의 오페라 가수, 6000여명의 변호사, 2000명의 음악인 등이 그 뒤를 따라 나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익명의 집단성을 구사하면서 개인에 따른 구체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익명 속 전체’ 전략을 구사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법정으로 사건을 가져가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개인의 중요성이 집단에 매몰되지 않는 문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총체적으로 보자면, 싸워야 하는 적(‘구조는 어떤 가해자 보다 큰 적’)을 부수는

거대한 공이 되어 직진하였으나, 거대한 공으로 뭉치면서, 공동의 목표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특성이나 욕구를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공은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었지만, 철저하게 개인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동그란 우산 이었던 셈입니다.

◎ 스웨덴 익명의 500명 미투 공동행동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저는 스웨덴의 이 사례를 보면서, 만약 한국 #00계 성폭력, #미투 초창기에 이런 전략이 구사됐으면 어땠을지 떠올려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회의감을 들었습니다. 짐작컨대 피해자도 익명이고 가해자도 익명인 이런 식의 싸움이 2,3년 전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실체가 없다며 비난 받고, 망상에 휩싸인 피해의식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이라고 마녀 사냥 당하진 않았을까요. 최근 몇 년 사이 #00계 성폭력, #미투 라는 이름으로 수 많은 용기 있는 여성들의 폭로를 통해 비로소 한국 사회가 그 심각성을 인정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물론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speak out)은 한국사회에서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지만, 최근 몇 년처럼 압축적으로 대중적으로 진행되진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웨덴 익명의 배우 500명 미투 공동 행동’은 오히려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나의 가해자는 유명하지 않아서 미투를 해봤자 묻힐거야”, “미투해봤자 나만 다칠거야”라며 침묵에 갇혀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스웨덴 사례를 변주한 행동을 해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피해경험을 말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이 많지만, 침묵의 회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우리의 미투는 끝나지 않았고, 끝낼 수 없지만, 미투가 이제 그만 사그라들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계속 말하기가 필요하고, 안전함이 필요하며, 집단을 통해 개인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역별로 ‘익명의 미투 100서(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공통의 틀을 가지고 자신의 피해 경험을 각자의 언어로 서술하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에 대한 서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연극계와 영화계 성폭력의 양상은 무엇이 같고 다른지, 문학계와 연극계, 사진계와 미술계, 무용계와 영화계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면밀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작업은 거대한 지도를 그리는 과정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어느 특정 영역의 성폭력이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영역 별로 조금씩 다를 성폭력 발생 형태나 양상을 파악하고, 피해자가 침묵이나 고립으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의 파악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지도 그리기는 한국 전반의 반성폭력 운동에서도 필요하지만, 영역별 반성폭력 운동에서도 중요할 것입니다. 각 영역별 성폭력 발생 구조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명확히 파악해야, 영역 내부의

구조와 문화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지 선명해 지기 때문입니다.

◎ 스웨덴과 한국의 연극 작업과정

저는 스웨덴의 연극 작업 과정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국과는 분명 다른 시스템이나 협의 과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면면들이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연극계 미투가 이어지면서, 연출자 1인에게 집중된 권력, 배우는 연출자의 마리오네트라는 인식, 위계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 소수의 유명인에게 집중되는 권력과 지원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잘 발달하고 협동과 합의가 중요한 스웨덴에서의 연극 제작 생태계는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젠더 위계라는 토대 위에서 발생하지만, 여러 위계나 비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 등이 성폭력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기제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단순히 성폭력 없는 사회 일 뿐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때, 앞서 지적된 ‘관행’은 반드시 변화해야 하는 문화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놀랐던 것은 연출자의 독재나 의사소통의 비민주성 등에 대해, 고유한 스타일이라거나 연극계의 특수성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것을 옳은 것으로 착각하는 전형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적폐라는 단어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극계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작품 만드는 방식이나 극단 운영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어떤 대안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혼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희망과 과연 제대로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회의감을 오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언제나 문제의식을 가진 이후 대안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를 뛰어 넘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현재의 몸에서 다른 감각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에서 연출자와 배우의 관계 설정이나 협업 방식을 통해 좋은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물론 스웨덴과 한국은 문화가 다르고 동시대지만 다른 시대(일상의 민주주의, 성별격차, 낙태죄 등)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의 적용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몸의 감각이 어디즈음인지 좌표를 찾는 데 혜안을 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웨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몇 명의 스웨덴 활동가들에 대해 매우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만난 건 팔레스타인에서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세계 각지에서 점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러 온 활동가들이 있고, 제가 현지에서 함께 했던 조직은 비폭력 직접행동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현지 활동을 시작하기 전 3일 동안 공동으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활동 중 여러 위기가 닥쳤을 때 팀별로 어떻게 의사를 조율하고 함께 움직일 것인지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가장 침착하면서도 명확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친 활동가가 스웨덴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치는데 팀 안에서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능했습니다. 그때는 2004년이었고, 이후 한번 더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도 역시 스웨덴에서 온 다른 활동가들을 만났는데 역시 비슷한 성향이었습니다.

우연이고 개인적 특성일 수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민주주의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의견 앞에서 경직되는 저와는 너무나 다른 ‘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하지만 부드러운, 자유로운데 존중하는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 있는 몸의 느낌이었습니다.

◎ 극단 목화 대만 공연 보이콧과 지속되어야 할 전략

극단 목화의 공연이 대만에서 취소⁵⁾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보이콧이 더 많아져야 하고, 그런 연대를 앞으로 견인해 낼 수 있으리라 고 봅니다. 저는 대만에서의 보이콧을 보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문화예술을 ‘글로벌’하게 육성해야하는 ‘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부에게 극단 목화 작품에 대한 대만 공연 취소는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실추, 한국 문화 산업 이미지 실추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보이콧 행동 자체로서의 의미 이외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미투 현실 앞에서 정부의 역할을 논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연극계를 포함해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정부가 어떤식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언제나 양날의 검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어느 영역이든 미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낮은 기소율과 처벌율, 편파 수사 등은 그 입장을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계속되는 스쿨미투에도 교육부는 별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 시민권은 아직 요원한 일로 느껴집니다.

어쨌거나 정부는 미투에 대해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정부를 압박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연극계 미투와 관련해서는 가해자들의 작품이 해외에서 공연 될 때마다 보

5) 대만 측"오태석 공연 취소 결정, 극장 내 성폭력 안돼", <노컷뉴스>, 2018.5.4

이콧 요청을 해당 국가의 문화예술계나 페미니스트 그룹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보이콧이 이뤄지면 좋지만 언론을 타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압박이 되거나 최소한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콧 요청이 그 나라의 여성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전해 줄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해자의 작품이 공연 된다면 이 역시 해외 예술가들에게 연대를 요청해서 항의 성명을 받고, 한국에서 낭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반도라는 특성과 인접 국가들과의 특수한 관계 상황 등으로 인해 국제 연대에 대한 경험을 쌓아갈 기회가 적었습니다. 해외 공연이나 교류가 아닌 국제 ‘연대’나 ‘투쟁’ 같은 것이 여전히 낯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의 좁은 경험에서 벗어나, 어떤 의미에서 국제연대가 좀 더 하기 쉬운 투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조금 다르지만 제가 했던 보이콧 경험 중 하나를 공유해보겠습니다. 오랜 점령에 놓여 있는 팔레스타인은 국제 시민사회에 이스라엘 BDS⁶⁾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도 보이콧을 몇 차례 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문화 관련한 최초의 보이콧은 2014년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EIDF)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대사관은 EIDF 공식후원자였고, 이스라엘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학살자 국가라는 이미지 세탁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EIDF 후원도 그 연결선상에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그 사실을 영화제 시작 보름을 앞두고 알게 됐고, EIDF 측에 이스라엘 대사관 후원철회에 이스라엘 영화 섹션 철회, 이스라엘 컨퍼런스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의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을 조직해서 연대 성명을 내고, 관객들의 연대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영화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보이콧 시작 일주일만에 EIDF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⁷⁾ 세계적으로 영화제를 대상으로 이런 규모의 요구사항을 성공한 사례는 한국의 EIDF 보이콧 액션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각국에서 크고 작은 BDS 액션이 성공할 때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본인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절망감을 조금씩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압박을 느낍니다. 양측 정부는 외교 문제로 번질까바 긴장합니다(EBS 사장-이스라엘 대사)

우리도 국제 연대 투쟁의 경험이 적지만, 정부도 그것에 대응해온 경험이 적습니다. 국가 이미지도 문제지만, 외교/국제 관계라는 예민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듯, 국제 연대는 서로를 확장시킵니다. 물론 모든 연대가

6)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항의 하는 행동으로서, BDS는 불매(Boycott), 투자철회(Divestment), 제재(Sanction)의 약자다

7) 보이콧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내가 그 감독에게 물었던 것, 듣고 싶었던 것", 반다(조한진희) <미디어스> 2014.9.16.

기본적으로 그러합니다만, 국제연대는 좀더 그 폭이 넓기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들의 모든 작품이 소멸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태석, 이윤택처럼 사과와 반성 없는 가해자들의 작품에 대한 보이콧은 당위나 전략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정부를 압박하는 의미에서의 해외 그룹과 연대하는 공연 보이콧이 갖는 의미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공연 예술에서 공연 보이콧은 엄청난 의미인 만큼 다층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가해자 징계와 법적 대응: 반성폭력공동규약

이번에는 시스템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약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 책임론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현실에서 잘못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사회적 처벌 여부는 때로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가해자들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법은 피해자의 목소리보다 가해자의 논리에 귀 기울이고, 재판 과정에서 수 없이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해자에 대해 법적인 처벌 이외에 징계 방법이 없을 때, 많은 피해자를 비롯한 연대자들은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의 경계를 사회적으로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기업, 노조, 사회단체 같은 경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정으로 가지 않더라도 자체 규약에 근거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극인들은 조직에 속해 있지 않거나 조직에 속해 있더라도 강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연극계에서는 법 이외에 무엇으로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자가 어렵게 용기 내어 가해자를 폭로 했을 때,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개인이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게 아니라, 신고기관이나 대책위를 통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권하기도 합니다. 연대자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해 대책위를 꾸려 활동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가해자가 연대자(대책위)를 역시 역고소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역고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피해자와 연대자들이 보호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참여했던 한 대책위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운동

사회성폭력 대책위에 참여했었습니다.⁸⁾ 이 사건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대책위원을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대책위원이었던 저와 피해자들은 단체 반성폭력 내규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가해자는 대책위 활동 자체를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몰아갔습니다. 재판은 2년간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내규에 따른 공익적 활동이었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결국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는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소속된 단체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성폭력 대책위 활동 보고서를 내면서 가해자가 연대활동 차원으로 참여할 만한 관련단체에게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함께 연대하지 말 것을 제안했고, 다행히도 각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단체들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강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는 ‘운동사회 내 반성폭력 공동규약 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건은 연대 활동 과정에서 서로 다른 조직 활동가 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었고, 운동사회 특성상 연대 활동이 많다보니 그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마다 반성폭력 내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운동사회 단체 간에 공동규약이 있다면 그것에 근거해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징계를 포함한 대책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역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동규약에 근거한 공익적 집행 과정이었음을 입증하면 법정에서 우리가 입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규약에 근거해 가해자를 일정하게 징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연극계에 적용한다면, 연극계반성폭력공동규약을 제정하고, 그 규약에 서명하는 것을 관행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규약 안에는 성폭력에 대한 규정과 처리 절차는 물론 징계 수위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사과정을 거쳐 가해자로 판명되면, 피해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어떤 극단의 작업에도 참여 할 수 없게 하고, 성폭력가해자교육 이수 등을 명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카고 스탠다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극단이나 공동체 별로 윤리적 약속을 하고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도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의식과 제도는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서로를 의존하며 나아갑니다. 의식이 제도를 구성하기도 하고, 제도가 의식을 견인하기도 합니다.

◎ 혁명과 혼돈의 순간을 나아가며

8)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J성폭력사건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보고서", <참세상>, 2018.8.23

지금 한국 사회의 미세혈관까지 진동하게 만든 미투가 어떻게 그 이후로 넘어 갈 수 있는 지 막막하고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순간을 지나고 있고, 그 혁명의 점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단기간에 수 많은 분야의 유명인에서 평범한 시민들까지 이렇게 많은 미투가 동시 다발로 진행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격동하는 시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다소의 혼돈은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중이고, 기존 몸의 낡은 방식과 감각을 버리고 보다 예민하고 수평적으로 반응하는 몸으로 그리고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화하는 몸으로 ‘진화’ 해 나가는 중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아플 수 있었던 몸이고, 나아가기 위해 흔들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연극인들 모이자’는 한마디에 150명이 모여 밤새 토론 했던 것 그리고 그 하룻밤 만에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이 결성된 것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박영희선생님과 수잔나딜버선생님의 만남은 역사가 우연과 필연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픽션은 논픽션의 극적 상황을 넘어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극적 장면을 목도한 기분입니다. 저는 스웨덴 공연예술계 미투 활동가와 한국의 연극계 미투 활동가들이 만나는 포럼 웹자보를 보면서,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일본 미투가 제대로 불붙지 못했다는 뉴스를 보며 늘 안타까웠습니다. 한 일본인 친구와 일본 미투가 잘 형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는데 ‘동조압력’ 때문일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닐 수 있지만, 큰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여성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스웨덴 의명의 500명 공동행동’ 사례일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하나의 점이 아니라 여럿이 뭉쳐있는 거대한 공으로 존재함으로써 소외되는 소수가 아니라 힘 있는 다수가 되는 전략 말입니다. 서로를 지켜내고, 구조를 부수는 힘이 되어 직선으로 적진에게 지속적으로 펀치를 날리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얼마 뒤 일본에서 스웨덴의 사례를 듣고 싶다며 수잔나딜버 선생님을 일본으로 초대하고, 한국에서 순식간에 150명이 모여서 밤새 토론하고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을 만들어 연극계 미투를 진전시킨 영화같은 현실을 듣고 싶다며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날 말입니다. 여성에게 국가가 없다면, 국경을 초월한 연대가 우리의 해방을 앞당길 것입니다.

우리는 가해자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듯 우리의 ‘몸’도 바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혹은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더 많이 향하던 질문들도 포함 됩니다. 가해자의 행위와 행실이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여부와 행실을 물어 왔던 몸에 밴 습성과 효과에 대해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쏟아지던 질문을 가해자에게 향하게 하는 연습 같은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⁹⁾ 우리가 편안하게 느껴

9) 가해자의 진심은 왜 당신에게 중요한가, 반다(조한진희), <위커스>, 2017.12.14

은 우리 몸의 감각들도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구성된 결과입니다. 자연스럽다는 느낌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사회, 문화적 요소가 개입해서 형성되는 매우 정치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스럽다는 말에 간혀 있는 몸, 권위적인 행동에 익숙한 몸을 기존 젠더 구획에 갇히지 않은 몸으로 수평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몸으로 바꾸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현장 어디까지 꿈꿀 수 있을까

김신록 배우, 창작자

저는 대학로를 중심으로 배우, 창작자, 워크숍 리더로 활동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시간강사로 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잔나 딜버의 발제문이 본격적인 미투 사례를 언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있어 기쁩니다.

Men and women have never been treated equally on a stage or a film set. Men have always been considered more talented, funnier, more serious, more relatable, more likely to be a genius. Women are women, but men are human. Women have women's issues and tell women's stories, men are the depictees of humankind and human existential questions.

This also means that a woman's worth is mainly decided by men, and mainly based on how desirable she is.

남자와 여자는 무대 또는 영화 촬영장에서 결코 동등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항상 더 재능 있고, 재미있고, 더 진지하고 더 관계적이고, 더 천재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자는 그냥 여자지만, 남자는 사람입니다. 여자들은 여자의 이슈를 가지고 여자의 이야기를 하지만, 남자들은 인류와 인간 존재의 질문들을 그립니다.

이것은 또한 여자들의 가치가 주로 남자들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남자에게) 매력적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어 제시되었던, 프로덕션 안에서 여성이 겪는 각종 불평등 사례, 제작자 및 관객들에게 남성이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무시되고 제거되었던 여성들의 호소, 결과적으로 어떻게 침묵이 공고해지고 일반적인 것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모두 깊이 공감할 만 했고, 구체적인 성범죄 사례에 앞서 제시되어 기쁩니다.

이는 미투 운동이 단순히 '성폭력 방지 및 대처 운동' 처럼 축소되어 인식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듣고, 연습실, 극장, 술자리에 다들 맡가짐 몸가짐을 조심하는 모습을 보면, 전보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어디까지 바랄 수 있는지, 어디까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위에 발췌한 딜버의 발제 내용이 한국 연극계에도 그대로, 심지어 훨씬 더 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젠더 권력의 불평등이 미투 운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미투를 촉발시켰던 성폭력 사건들이 젠더 위계와 권력 위계의 복합 작용에서 기인한다면 젠더 이분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연극계 내에서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권력은 지원금을 만들고 배분하는 국공립 기관 고위직들에게,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지원금을 받아 내 배우를 캐스팅하는 연출가들에게, 프로덕션에 참여하는 선생님 혹은 선배님들에게, 주요 배역을 맡은 배우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나열된 포지션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수적으로 월등히 많습니다.

“미투 문제를 권력 문제로 봐야지 젠더 문제로 보려고 하면 싸움만 난다.

젠더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지 마라.

이렇게 남성중심서사가 많은 것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미투 운동에 지지를 보내고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남자 동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젠더 간 불평등이 문제가 아니고 권력 위계가 문제이므로, 권력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잘 감시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성폭력 역시 현상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많은 성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권력이 뒤집히면 여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성폭력 역시 ‘젠더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성폭력 및 위계폭력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구조 중 하나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젠더 위계를 마치 권력 위계의 우연적인 부분집합처럼 치부하면서 권력 위계만 논하고 젠더 담론은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남성중심 서사에 대한 편중, 여성이 대상화 되고 도구적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들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표현의 자유, 시장의 요구,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꽃미남들 나오는 영화나 연극의 관객들 대부분이 2,30대 여자다. 여자들도 남성중심 서사를 좋아한다. 시장이 그렇게 형성된 것은 남성 기득권의 음모가 아니다’라고도 말합니다. 개개인의 욕망의 충돌이 빚어 낸 시장이 여자를 이런 방식으로 소모하는 데 동의했는데 그 동의의 결과로 본인이 소외됐다고 억울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근 영화 3편의 오디션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여자 배역이 거의 없는 한국 영화계를 생각하면 운이 좋았지요. 세 편에서 제안 받은 배역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교통사고 당한 남학생의 엄마, 귀신 들린 여학생의 엄마. 시장은 왜 이렇게 형성되었을까, 누가 사회의 취향을 결정하는가로 논쟁이 이어지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며 대화가 끝납니다. 얼마 전 <비평가>라는 2인극에서 두 명의 여자 배우가 남자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로 제대로 된 주체적인 여성 인물이 부재하다시피 한 한국 연극계에서 데뷔 15년 만에 '여자' 가 아닌 '인간' 을 연기해봤습니다. 공연을 본 한 여성 관객이 '정말 연극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무대에서 여자배우들이 다 때려 부술 듯이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정말 처음 봐서, 세상이 뒤집히려나보다 생각했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얼마나 멀리까지 꿈꿀 수 있을까요.

미투 운동 이후 국립극단을 비롯한 각종 국공립 연극기관들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음 주 국립극단에서 <오슬로>라는 작품이 무대에 올라갑니다. 작품에는 남자 배우가 11명, 여자 배우가 4명 출연하며, 4명 중에서 중심이 되는 여자 캐릭터는 1명이고 나머지는 누군가의 부인들입니다. 2017년에 토니상을 수상한 희곡이니 좋은 작품일 겁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희곡작가도 사실에 근거해 남자 역할 위주로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하니 한 명의 관객으로서 기대가 큼니다. 공연에 참여하는 남자 배우 한 분에게 그래도 어떻게 15명 중에 주체적인 여자가 1명이냐고 불멘소리를 했더니, '그래도 그 역할이 다른 남자들보다 현명하다. 남자들 다 세상 속에서 아웅다웅 싸우는데, 남자들 머리 위에서 남자들을 조정하는 건 그 여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남자들 머리 위에 있는 한 명의 현명한 여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아웅다웅 싸우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더라도 국립극단은 최근 한국 사회의 흐름과 연극계의 미투 운동, 젠더 이슈 등을 고려해 다른 작품을 선정할 수는 없었을까. <오슬로>가 같은 기간 예정되어 있던 공연이 내부적인 문제로 취소되면서 6월 경 대체 작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립' 극단으로서 조금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립극단 및 한국연극배우협회, 서울연극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연극관련 기관들에게 '성폭력예방교육'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기관이 이해하는 미투 운동은 '성폭력예방운동' 이 전부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딜버의 발제문에서 다음 부분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The article was published online on November 8th last year and the reactions were immediate and full of shock and disbelief. The minister of Culture and Democracy took action the same day and summoned the executives of our national theatres. Our trade union, the Union for Performing Arts and Film, immediately spoke out and established a commission to investigate the issue together with the employer's organization Swedish Performing Arts Association. In the days after, TV and newspapers overflowed with theatre and film executives

(미투) 기사는 작년 11월 8일에 온라인으로 발표되었고, 반응은 즉각적이고 충격과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문화민주주의 장관은 같은 날 조치를 취했고, 공공극장들의 경영진들을 소집했습니다. 우리

의 노동조합인 공연예술 및 영화조합은 고용주들의 기관인 스웨덴 공연예술 협회와 함께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즉시 발표했습니다. 그 날 이후 TV와 일간지는 연극과 영화의 경영진들로 넘쳐났습니다.

작금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셀프 면책’ 사태를 보고 있자니 문체부가 미투 운동의 적극적이고 참신한 조력자가 될 것이란 기대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최근 불거졌던 연극 관련 각종 ‘협회’ 들의 실책과 연극인들의 불신, 협회와 현장의 괴리 등을 생각하면 협회라는 곳 역시 마찬가지로인 듯 보입니다. 스웨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첫 언론 기사 제목인 ‘우리는 성폭력에 충분히 시달렸다’ 는 식의 진정성 있는 제목을 뽑아 줄 언론사도 언론 매체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 외에 연극인들을 위한 광범위한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니...정말 개개인의 연대 이외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성폭력예방교육’ 이상의 예술생태계의 구조 및 환경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상상과 실천은, 박영희님의 발제에서 확인한 것처럼, 국내외로 연결되는 자발적인 연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잔나 딜버의 발제문 중 다음 부분이 저에게 가뭇의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There can be smaller things, as well. An actress found out that her name was not to be on the poster, even though she played the female lead. She spoke to the group and got support to talk to the producers and claim her name should be featured, which in the end it was. I believe that knowing that the group exists make us braver and gives us greater chances to claim our rights.

뿐만 아니라 이보다 사소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여배우는 자신이 주연으로 참여하는 작품의 포스터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그룹에 이러한 사실을 논의하였고, 우리는 즉시 그녀를 도와 담당 프로듀서에게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그룹의 존재가 우리의 용기를 북돋우며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도록 돕는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최근 대전예술의 전당이 기획, 제작하고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도 공연된 <백치> 포스터가 떠올랐습니다. 포스터에는 두 명의 남자 배우 사진과 두 명의 남자 배우 이름만 올라와 있습니다. 막상 극을 보니 여자 배우가 아주 중요한 캐릭터 중 한 명이어서 놀랐습니다. 몇 년 전인가는 동아연극상 연기상에 여자 배우 수상자가 없어서 놀랐습니다. 워낙 여자 배우가 연기력을 펼칠만한 작품이 없으니 상 줄만큼 연기한 여자 배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이런 편향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대신 ‘올 해 여자배우들 중 상 줄 만큼 연기 해낸 사람 없었다’ 는 선언에 다름없는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은 무책임하고 권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와 같은 예들은 직접적인 성폭력 및 위계 폭력 문제보다 사소하고 덜 직접적이며, 덜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연극계 내에서 젠더 위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초적인 부분이며, 우리가 어디까지 꿈꿀 수 있는지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초적인 부분의 개선을 위한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지원금 제도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할 것이냐, 남성 중심으로 쓰여 있는 희곡들을 젠더 블라인드 캐스팅을 할 것이냐,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책무에 앞서는 것 아니냐,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장려할 것이냐 혹은 강제할 것이냐,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등등. 다만 미투 운동을 계기로 혹은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이런 식의 논의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어디까지 꿈꿀 수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국내 연극계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으니 실제적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및 대처가 우선 시급하고 이는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강조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분명 합니다. 그리고 처음 문제제기를 시작해주신 분들, 이에 연대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실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분들께 깊은 존경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는 그분들의 노력에 용기 내어 내일의 꿈을 오늘 미리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카고 스탠다드(CTS) 역시 연극계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예술가 연대의 자발적 대처에서 시작된 고민이 성폭력 문제를 넘어 공연 예술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CTS의 내용은 제가 2004년부터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하면서 참여했던 많은 오디션과 리허설, 공연 상황에서 느꼈던 불편과 불만 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CTS와 같은 세심한 매뉴얼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일은 필연적이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연극계에 CTS가 적용되고 있었다면 겪지 않았을, 기존에 제가 오디션과 리허설 상황에서 겪었던 불합리한 사안들 중 일부를 나열한 것입니다.

<오디션의 경우>

- 2015년 국립극단 <갈매기> 오디션에 도합 6차례 불려갔고 최종에서 불합격했습니다. 당시 오디션에 참여했던 다른 배우들 역시 추석 연휴 전후로 일방적인 오디션 시간을 통보 받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 제도권 극장이 오픈하는 오디션에 참여할 때면 늘 소문처럼, ‘중요 역할은 이미 캐스팅 끝났다, 여자 역할은 누가 하기로 했다’ 는 말이 돌았고, 실제로 주요 배역은 내부적으로 캐스팅 되어 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 오디션은 별도 공지 없이 촬영되었고, 오디션 현장에 누가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간대별로 사전 공지 없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들쭉날쭉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러시아 연출가가 대형 제작극장에서 <갈매기> 오디션을 진행했을 때, 니나 역할 오디션에 참여했지만, 오디션 장에 해당 연출가가 없었고 현장 요청에 따라 마사와 아르카지나를 연기했습니다. 진행 팀에 이의를 제기하자 쉬고 있던 연출가가 화가 난 채로 들어왔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연출가 앞에서 잠깐 동안 니나를 연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 오디션 공지에는 ‘5분의 비극, 5분의 희극, 특기, 면접’ 으로 진행된다고 되어있었으나 첫 날 오디션에서 연기를 1분도 채 보여주지 못한 배우들이 많았고, 이 배우들의 항의로 둘째 날 부터는 실제 오디션 시간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리허설의 경우>

- 리허설 과정에서 안무나 신체적인 액션 등을 배우들끼리 주먹구구식으로 짜고 맞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때 주도적으로 안무나 액션을 짜는 배우는 이에 대한 크레딧이나 페이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 연습일정은 주로 연출가의 스케줄에 맞춰지고, 사전 공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배우들은 연출가의 강의 스케줄 등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공립 극장을 제외하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으며, 예산이 공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프로덕션의 사정상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공립 프로덕션을 제외하고는 연습실에 응급상자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안무나 액션 연습 중 발생한 부상은 배우들이 자부담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리허설 중 아홉 명의 여자배우들이 모두 상의를 탈의한 채 랩으로 몸을 감싸고 등장하는 장면이 추가되었고, 계약에는 없던 장면이었으나 여덟 명의 배우들이 동의한 상태에서 저 역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제가 경험한 사례는 위에 기재한 내용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으며, 저에게만 일어난 특수한 사례는 더더욱 아닙니다.

번역된 시카고 스탠다드를 읽으면서 국내 실정에 더 적합하도록 개정된 ‘코리아 스탠다드’가 만들어진다면 ‘연극관은 원래 그렇다. 연극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여겼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 개선 가능한 것이었고, 결국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생겼습니다. 특히 CTS가 고려하는 상황이나 사안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동료들과 공통의 이해에 가 닿고 함께 힘써 실천하기 용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에 발췌한 ‘CTS의 강령이 지향 하는 바’가 저를 고무시켰습니다. 불편한 상태를 비판하고 개선하는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 결국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 1) 인종, 젠더, 종교, 민족, 피부색, 능력을 따지거나, 성 구분을 근거로 **괴롭히지 않는 공간**
- 2) 스스로에게, 관객에게, 지역사회에 도전하도록 하는 환경,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위험한 상황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지지하는 환경,
모든 인류의 경험을 상징하는 연극을 만들 자유가 주어진 **환경을 만드는 것**
- 3)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글로 명시되어 있고, 점차 많아질 기준이 되는 항목들을 가지고서, 연극 환경을 실행할 수 있는 **공통된 이해**
- 4) 맨토십, 온라인 소통과 지역단체 봉사를 통해서 얻는 **동료의 지지**

자발적 연대와 자발적 규약. 우리는 어떤 연극계를, 어떤 세계를 꿈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꿈 꿔도 될까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반성착취 운동가의 시선에서 본 새로운 예술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소장

“전 세계 여성들이 매일 용기를 내며 살아야 하는”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 이 역설적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다. 더 민주적이고 더 평등한 사회에서조차 이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보다 더 뿌리 깊은 암묵적 동의에 의한 질서들이 존재했으며, #미투 운동이 바로 이 가장 근원적인 차별적 구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바로 이 뿌리깊은 차별적 구조에 저항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여성들이 매일 용기를 내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여성들의 목소리가 침묵을 뚫고 국경을 넘어왔다. 수잔나 딜버의장이 생생하게 들려준 그 현장의 목소리와 한국, 그리고 부산이라는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운동에 관한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자매애와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이 국제포럼이 성사된 극적인 순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동시대에서 일어난 스웨덴에서의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에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가해자를 지목하지 않고 피해자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은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문제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적인 이야기로 관심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에 대한 SNS상의 고발과 폭로에서 수많은 가해자들이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흔들고 입막음하려는 온갖 반격의 시도들을 현재진행형으로 목격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더더욱.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SNS와 미디어상의 폭로라는 ‘극단적인’ 발화 양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김지영의 지적처럼 “일반적 소통의 경로를 통해서는 강간문화의 구조를 도무지 흔들 수 없기 때문”¹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을 찢고 나온 폭로를 무화시키려는 온갖 반동적 시도들과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2차 가해를 매일 목격하는 우리는, 피해자를 지지함과 동시에 보호하는 전략들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목소리가 삭제되지 않고 기록되고 쌓여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방법들을 동시대의 #미투 운동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다.

10) 윤김지영, <지워지지 않는 페미니즘>, 은행나무, 2018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 스웨덴이라는 문화, 제도와 사회적 질서 시스템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덜버 의장이 언급한 성평등하고 진일보한 여러 사회 제도 외에도 스웨덴에서는 남성들의 일상적인 성적 서비스의 구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와 성착취 문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소위 ‘노르딕 모델’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남성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물화의 방식은 성착취를 통해 드러난다. 스웨덴은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상품화하고, 품평하고, 그것을 구매라는 방식으로 정상화시키는 모든 남성 문화에 경종을 울리기도 한 셈이다.

그러나 스웨덴에서의 #미투 운동은 이러한 남성문화가 어떤 사회제도적 질서보다도 더 뿌리깊은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는 기저였음을 보여준다. 가장 큰 권력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하이힐을 착용해야만 했던 호주의 여성 총리의 현실. 뿌리 깊은 가부장제 문화가 성역할에 의거하여 이미지로 재생산되어 왔다는 점, 배우들이 성별에 따라 겪어야 하는 현실과 성차별과 성폭력이 발생하는 문화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때문에 이처럼 뿌리깊은 억압의 문화가 예술의 영역에서도 다르지 않았음이 그간의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공론화와 #미투 운동을 통해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 왔던 것들

“젠더화된 폭력을 조장한 것은 문화적으로 강요되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환상이며,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환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싸우는 것이다.” 제일 다인스, *웬디 머피*¹¹⁾

우리가 예술에서 일반적으로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것들은,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거나 균열을 내고, 거기에 새로운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실제 모든 예술의 영역이 그러하지 않으며 예술이 사실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술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예술은 종종 성해방의 기획이나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국한되고는 했다. 물론 성해방과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간 사회에서의 주제다. 문제는 현재 예술계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성적 해방이 철저한 남성중심적 기획이었다는 것이다. 여러 증언을 통해 그 해방과 자유가 남성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드러난 셈이었다.

이러한 예술과 예술의 현장은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와 강간문화의 구조를 문제제기하는

11) 실라 제프리스, <코르셋>(열다북스, 2018)에서 재인용.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제도나 사회적 질서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더욱 더 억압과 침묵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문화예술계 내에 피해자들이 처한 취약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예술의 현장이 오히려 법과 제도에 기댈 곳이 없는 폭력의 사각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예술계가 기존의 사회질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케릴라겔스가 가시화한 미술계와 영화계 등의 현실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난다.¹²⁾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의 남성 시인이 성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일탈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폭력이 사실상 예술적 퍼포먼스로 용인되어 온 현실, 혹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행위조차도 그 ‘천재성’과 ‘재능’으로 옹호되어 왔던 현실, 그밖에 문화예술계 내에서 발생한 수많은 폭력들은 지금까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 왔었던 것이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 왔던 이러한 행위들은 문화적으로 강요되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환상을 더욱 키우고 조장하였으며, 그 자리에 여성의 성적 해방은 없었다.

#미투 혁명 이후 - 새로운 예술의 시대, 새로운 시대의 예술

송진희 작가의 말처럼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나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공감과 동시에 그동안 은폐되었던 성폭력 문화를 용인한 예술계 구조에 대한 분노’였다.

결국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예술이 문제제기해야 하는 방향은 바로 이 구조에 대한 직면이며, 가시화이며, 문제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사회 운동의 차원으로 퍼져나갔다면, 다시금 문화예술계 내에서의 조건들이나 환경을 바꾸는 시도가 되어야 하며 또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예술의이 던져야 할 새로운 질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예술은 성적 해방이나 표현의 자유가 남성 중심적 사회 질서와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역설적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남성중심적 질서를 전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 구조와 질서가 예술의 영역에서도 재생산되고 반복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새로운 언어들, 그동안 ‘이름 붙여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2) 고릴라가면을 쓰고 남성 회화를 풍자한 유명한 포스터에서 케릴라겔스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된 여성작가의 작품은 전체 소장품의 5%에 불과하지만 누드 작품의 85%는 여성 누드라는 현실을 비판한다. 또한 오스카 시상식에 대해 비판한 포스터에서는 최고 감독상을 탄 여성이 한 명도 없으며 최고 시나리오상의 92.8%가 남자들에게 돌아가며 연기상을 탄 유색인들은 5.5%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것이 예술이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이라면 또한 새로운 예술의 주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예술의 주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존의 남성 중심적 문화와 질서 속에서 예술은 한 개인의 명성, 표현, 자유와 사상과 고유성으로만 존재해왔다면, 이제는 다양한 익명의 목소리들, 이름을 얻지 못한 존재들이 구성한 새로운 단위의 모임과 네트워크가 새로운 예술의 주체가 될 것임을 상상해볼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미투 혁명은, 말 그대로 혁명으로, 예술계를 비롯한 전 영역 내에서 일어나고 또 문제제기 된 성폭력과 성차별을 단지 개별적인 형사사건이나 혹은 여성 관련 부서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남성 중심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전 영역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안을 관련 부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번 국제 포럼이 열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에 자기 삶을 건 사람들이 모인 축제이기도 하다. 영화는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예술이 하는 역할이 그것이라면, 미투 운동이 다시 예술의 영역에서, 예술의 문제로서 이야기되어야 하는 이유 또한 그것이다. 여성의 문제로 축소될 사안이 아니라 우리모두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일로서 고민되어야 한다. 모든 장에서 이 논의를 계속해서 열어나가야 한다. 그것이 발터 벤야민의 말처럼 정치적 삶의 심미화(審美化)를 예술의 정치화로 맞서 나가는 길¹³⁾이 될 것이다.

13)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도서출판 길, 2009

[별첨1_현장녹취록_부산포럼]

- 일시: 18.10.5(금) 늦은 6시-9시
- 장소: 부산영상벤처센터 5층 501-c(세미나실)

행사시작

사회자: 패널 소개. 저도 물론 영화계에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영화계의 미투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기덕, 조재현 관련된 이런 사실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어떤 법적 움직임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답답해하고 있으시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영진위 위원을 하면서, 한국영화아카데미, 영진위 산하기관이죠 영화아카데미에서 여성감독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중요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3년간 은폐되고 있었다는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나 피해자가 sns에 올리면서 공식화가 되었습니다. 은폐되었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되었는데, 저는 그 때 단장을 맡아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영진위, 특히 영화아카데미.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수 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폭력 사건이 3년이나 묻혀있는 것이 가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진위도 이 사건 이후에 보고서를 냈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영화아카데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나 노력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곳곳에 구조적으로 숨어있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양한 차원에서 여성들의 투쟁과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1 “스웨덴 예술가들의 공동미투 선언” - 수잔나덜버

(발제문 내용 동일)

○발제2 한국 영화계 미투 운동의 흐름 - 이화정

제가 얼마전에 스웨덴 영화진흥위원회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스웨덴은 남녀 감독, 스텝 작가, 배우들이 거의 이제 5:5정도로 캐스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역시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는 이렇게 성평등에 있어서도 앞서가고 있구나. 한국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기사도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이 세상에 여자를 위한 나라가 존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영진위 정책**에서 프랑스의 사례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마찬가지로 캐스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권력을 가진 남성 감독들이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여성

들을 농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도 미투가 일어났고, 중국에서도 조금씩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세계적으로 연대를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행사는 소규모로 이루어지지만 오늘을 계기로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제가 얼마전에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감독들을 만나며 들은 얘기 중에, 혹시 미투 들어온 남자배우 있냐는 문의였어요. 혹시 캐스팅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개봉을 할 수 없으니 문의를 해오는 거죠. 보통 감독들이 개봉시즌이 아닐 때는 전화를 하면 기자인 걸 알고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재각재각 잘 받으세요. 혹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우려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적어도 지난 시간동안에 이런 노력들이 여러 가지로 가해를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두려움에 떨게 해주었다는 것들은,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는 것이 고무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있었나. 우리가 취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국 영화계 미투의 흐름과 엮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하 발제문 내용 동일)

○발제3 부산 문화예술계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한다는 것 - 송진희

당시에는 문화예술계에서 서울 중심의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역은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몇 명의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뭔가 일부러 내고 보자 해서, 침묵보다 변화를 이라는 선언문을 쓰면서 그 때부터 부산에서는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마야 저희만 이야기하고 서울 쪽은 연결이 안 되어있고 그러면 저희도 쉽게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일어나고 활동에 굉장한 동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 운동을 하게 될 때 몇 가지 과정을 좀 거쳐야 했어요.

첫 번째는 그 때는 말하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했어요.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 공간들이 필요해서 처음에 한거는, 고발페이지를 먼저 열었어요. 왜냐면 부산은 어떤 피해사례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그런 것이, 성폭력이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예술가들이 용기를 내서 우리부터 얘기를 해보자. 해서 전개가 된거예요. 근데 이런 운동을 하고나면, 이런 피해 고발을 올리고 나면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이 있잖아요. 당신의 목소리를 지지합니다, 당신은 혼자 아닙니다. 같은 말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냐면요. 사실여부가 판단이 안 된 글을 올려서 되겠냐, 이렇게 문화판을 더 축소시키는 거다, 이제부터 여자작가들의 전시는 없다, 성폭력 얘기 이제 그만 해, 그리고 작가는 작품으로 승부를 봐야지 왜 자꾸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실제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가해자 주변의 동료들이 피해자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걸고 회유를 하고 그런 행위들까지 이어지고. 저희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면 전화가 온대요 너 페미니스트냐고. 그런 어떤 초창기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더 말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거죠. 그래서 반성폭력 운동에서 첫 번째로 건너야하는 다리는 이것인 것 같아요. 언어가 필요했어요. 어떻게 이 말들과 대응할 것인지,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말을 되받아 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단 저희가 한 활동을 모두 sns에 올리자 그래서 말을 부풀리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힘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성장을 해나가게 돼요. 사실 당시에는 지역 예술계와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정말 무지한 상태였고 이런 무지가 연대보다는 갈등이나 상처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 좌절할 수도 있는데 계속 활동을 이어 나갔던 것은 항상 저희 곁에는 고발을 하고,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이 곁에 있었고. 동시에 이게 얼마나 그 동안 침묵되어 왔는지 저희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들이 버팀목이 되었고 이 말들이 사라지면 안되겠다 라는 것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대가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뒤 취했던 방식은 개개인을 찾아가서 소수의 연대자들을 모으는 형식으로 운동이 진행됐어요. 초창기에는 우리를 공격할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실명을 바로 공개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고, 잘못된 게 아닌데 잘못된 것처럼 되어서, 조직이 필요했어요. 조직을 통해서 개개인들이 보호받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이기도 했어요.

(이하 발제문 내용 동일)

○토론1 미투 운동, 자발적 연대의 싹을 틔우다 - 박영희

(..)극단 목화에서 오랫동안 배우로 활동을 했고요, 오태석 연출에 대한 공개고발을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장 시간 많은 분들이 앉아서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자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소수의 남성분들도 계신데요, 표현은 안하시지만 여기에 앉아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들, 우리가 닦쳐서 싸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연대하시고 지지하시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긴 시간동안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고 저는 믿고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발제문 내용 동일)

○토론2 반성착취운동가 시선에서 본 새로운 예술 - 변정희

제 지인이..아니 선진국이라서 공무원들이 연수를 가는 그 나라에서도 미투가 일어나고 있
다니, 전세계 여성들은 매일, 언제나 용기를 내서 살아가야 하는군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사회에서 조차 뿌리 깊은, 암묵적 질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다
시 확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잔나 딜버가 말한, 여자는 여자이고 남자는 인간이었다. 라는
바로 그 질서겠죠. 이 질서 속에서 전세계 여성들은 매일 용기를 내어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의 양상과 스웨덴의 양상이 달랐던 것이 저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피해자
들이 sns와 미디어를 통해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 폭로라는 극단적인 발화양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사회의 구조 때문이겠죠, 일반적인 소통의 관문을 통해서도 강간문
화의 구조를 도무지 흔들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하 발제문 내용 동일)

[질의응답-전체토론 시간]

사회자: 이화정 기자님이 떠나야 하셔서 지금 바로 플로어질문을 받은 이후에 토론하는 것
으로 순서를 조금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발표를 하신 세 분한테,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로어 질문: 수잔나 딜버씨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가해자를 지목하지 않았던 익명의 운동
전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했는지. 가장 큰 효과는 무
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수잔나: 네 이제 가해자를 지명한다는 것이, 누군가 특정한 인물을 지목하는 것이, 많은 위
험부담을 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증거확보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
라든지 성희롱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나의 명예
를 훼손하려고 한다 라고 주장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희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
집중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짓
말을 했다고 사람들이 저희한테 딱히 불평을 하거나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슈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에서는 한국과 달리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고 예술
정책가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런 차별금지정책을 시행해야한다는 그들의 의무를 보다 상기
시키는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회자: 하여튼 발표해주신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투운동과는 상당히 다른 지점들이 그죠 있잖아요. 설명을 해주실거라 생각했거든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수잔나: 한마디 더 하면, 사실 저희가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는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누구를 말하는지, 누구를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업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미투 후에 그룹 내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유명한 남자 영화배우가 있는데, 그와 함께 일하고 있던 영화제작자가 남은 촬영기간동안 그를 따라다니고 그를 감시하는 경호원을 새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인물을 지목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또 한가지 굉장히 중요한 효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내 이름은 이제 지목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거야 아님 저 사람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괜찮을거야' 이런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저희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화정: 어 제가 그 수잔나 딜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전개했던 방식과 다르다는걸 느꼈는데, 지금 익명으로 가해자를 지목하지 않고 어떤 연대의 힘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라는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우리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정 반대의 노선을 걸었던 편이거든요. 그니까 지난 2년 동안 기사화를 하면서 처음 1년 동안 영화계 내 성폭력 기사를 계속 취재를 했을 때는 대담에서 언급된 가해자 이름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사례수집을 하면서 취재했던 가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A, B를 썼었어요. 근데 A, B를 쓸 때, A랑 B로 쓸 것이냐, 누구나 아는 정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영화계에서 어떤 식으로 지목되는 분들은 거의 영화계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이름을 듣지 않아도. 근데 그랬을 때 특정 C라는 이니셜로 썼을 때, 누구나 아는 C라는 이니셜을 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기사를 완성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었던게, 증거가 없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사실이 아닌 기사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유명인들의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피해자들이 실명을 공개하기를 원했었고, 기사까지 실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미투운동에 실명으로 거론됐었던 분들의 상당수가 영화계 내 성폭력 때 많은 분들이 제보하셨던 분들이랑 겹쳐요. 그 때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본인도 기사를 읽으면서 알았을 거예요. '아 이제 이거 내 얘기구나' 알았겠지만 그냥 나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의식이 없었던 거죠. 근데 미투 운동에 의해서 실명이 거론된 이후에는 일단 사죄를 하세요. '어 몰랐는데, 내 의도와 달랐는데, 혹은 이렇게 까지 될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에게 미안했고 실은 이제 그 미안한 마음에 여러 번 접촉도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뭐 사과문을 내겠다. 페이스북 같은 데에 하겠다.' 그리고 그런 행보를 하신 분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서 이후에 대처방안들을 보면 진짜 사

과를 한건가 생각이 든 게, 저의 기사들을 이제 다시 역공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했었고, 사실 관계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법정으로..이 문제를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고소의 절차를 밟기도 하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조력자로 추정되시는 분들도 약간 협박성 내지는 그 가해자의 잘나가는 영화계에서 잘나가는, 혹은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인재를 우리가 싹을 자르고 있다. 어떤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해자의 미래가 그렇게 소중하고 싹이 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의 가해로 인해서 그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와 그들의 경력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과연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기사화했던 것에 대해 소기의 성과들도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실명을 공개하고 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것 때문에 정말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스웨덴의 운동 상황을 보면서 또 다른 어떤 방법? 우리가 ***를 거쳐서 그런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은 좀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일 년 동안은 정말 실효가 없었다, 라고 영화계 내 성폭력 문제를 이야기 할 때 정말 실효가 없었던 것들을 실감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플로어질문: 좀 전 질문에 이어지는데요, 한국과 스웨덴의 양상이 다르잖아요. 스웨덴에서는 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을 숨겼는가에 대해서. 발표문에 써 있긴 하지만. 피해자는 숨기고 대신 가해자의 이름이 얘기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가 누군지 알고 있고..그래서 명예훼손을 당한다던가,,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수잔나 딜버랑 다른 분들도 같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잔나: 가장 큰 차이로는 시스템적으로 배우들을 보호하고 스웨덴은 그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잘 형성되어있다는 것인데요 어, 심지어 노조에서 고용한 법조인들이 그 배우들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고 신고전화센터도 있고, 또 촬영장에서도 배우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도 구조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장치가 되어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화정: 그 실명공개는 사실 이제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어서 이게 좀 사례가 다르긴 한데, 최근에 이 가해자만 실명이 공개되고 피해자는 좀 숨기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취재과정에서 사례 중에 하나는 어떤 그 공공의 적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가해자는 있는데, 제보를 하신 분이 나 혼자 제보는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니까 이제 연

대라면 연대일 수 있고 아니면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몇 명 정도가 있으면 그래도 이 사람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실명을 공개만 하고 내가 이 사람이랑 일대일로 대응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의 하나의 사례가, 지금 이제 김기덕 감독이나 이런 분들은 언론에 이미 공표가 됐고 피해 사실들이 드러났지만 그 외에 이제 많이 영화계에서 대담 진행하면서 나온 또 다른 감독의 이름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그 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얘기를 못했던 이유는, 안희정 사건이랑 유사해요. 거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이 감독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감독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예술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게 피해인지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활동을 하지 못하고, 경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물론 이제 여성 처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거기에는. 그래서 영화계를 떠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올 초에 미투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었고, 다른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같은 경우에 내가 같이 그분들을 설득해서 고발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진척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결국에 이게 유야무야 됐던 이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피해인지 밝힐 수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역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그 지난 육개월 동안의 사례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이걸 차마 오픈을 하지 못한 상태로 저희도 실은 좀 묶어 놓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한테 우스갯소리로 어, 씨네21 그렇게 블랙리스트가 많다며? 라는 얘기를 지금도 끊임 없이 듣고 있는데, 물론 있습니다. 근데 묶어 놓고 있지 오픈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 기사화 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기사를 쓰고 언론이기 때문에 빠진다는 이런 거랑은 좀 다르더라구요. 이 기사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영화전문 잡지다 보니까 각종 장르나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 편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특화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많은 생각이 없었다고 하던 기자든, 누구든, 정말 좀 동등한 기회로 취재를 하는 기회들을 열어두고,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지 않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게, 취재를 직접 했을 때랑 안했을 때랑 체감이 너무 달라요. 직접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와 언론으로 접했을 때와 너무 천차만별로, 감정적으로 그냥 뭐 이게 기사를 쓴다던가..감정적으로 정말 상처를 저희들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가려진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기사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활동가는 아니지만 언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좀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회자: 시간 관계 상 한 분 만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이 자리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마이

크를 잡게 됐는데요, 저는 학내에 미투운동이 발생하면서 지난 7개월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겸해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학교를 다니는게 좀 환멸이 나가지고 갑작스럽게 휴학을 하고, 제 일상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학교에 돌아왔는데 학교가 되게 평화로운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나의 삶은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학교가 변함이 없어보이고 다들 이 일에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기세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무기력하더라고요. 학교 내에서도 시스템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또 특히 영화촬영과 관련해서 일이 몰려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똑바로 행동하자? 아니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자? 라는 의미로 학칙을 얼마전에 개정을 하게 됐고,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걸 발표할 생각인데요. 이걸 만들면서도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을 갖게 됐는데 이번 발표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는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며, 이게 지금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어 이번 학기에 든든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뭔가 학생들이 4년 동안 계속 만나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현장에 나가려는 여자선배들을 보면 저 선배 괜찮겠냐는 걱정이 아니라 잘 하겠지 라는 응원의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 마음이 많이 위로 받았습시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화정: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일리를 만들고 있어서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미투운동에 관한 제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기사 제보를 해주시면 '든든'이랑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논의를 하고 법적인 자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구가 열려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건 접수를 떠나 언론으로서는 성폭력이나 성차별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성들이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항상 콘텐츠 내에서 대상화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23년이 된 잡지인데, 잊혀져 간 이름들이나 여성캐릭터나 여성 스태프들, 감독들..언론으로서 더 집중하고 조명하고 물론 제도적으로 그 분들이 나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이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명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언론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특집이나 기획기사들을 최대한 소재들이 있으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수잔나 딜버님이 이렇게 먼 걸음을 하셔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다음 기회가 있다면 끝까지 남아서 끝장 토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영화계에서 많은 여자들이 남지 못하고 사라지는가 이런 문제들도 해서,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이 영화계의 현실에 문제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도 영진위에 성평등**를 만들어서 영화 업계, 산업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

로잡으려고 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음 이걸 온스크린 오프스크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프스크린은 영화현장, 여성감독들에 대한 격리라든가 또는 제작 현장에서 여성 스텝이나 배우들을 향해 이루어지는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면 온스크린은 방금 이화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영화 속에서 왜 이렇게 여성 주인공이 없고 또 왜 그렇게 여성들이 부정적으로 재현되는가, 최근에 브이아이피 영화를 둘러싼 여혐논란 이런 것처럼, 이게 양 쪽이 다 심각한 문제로 존재하고 또 뗄 수 없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의 권리. 남자들이 영화를 만들고 여자를 이런 식으로 재현이 계속 된다던가..확실히 외국의 사례를 봐도, 여성감독, 여성스텝, 여성배우가 참여했을 때 훨씬 더 여성의 새롭고 긍정적인 재현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온스크린과 오프스크린의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첨2_현장녹취록_서울포럼]

- 일시: 18.10.5(금) 늦은 5시-9시
- 장소: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 5층 이음아트홀

사회자

이 행사는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후원합니다. 원래 같으면 나란히 모이기가 어려운 기관들인데 이슈만큼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동력을 꾀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만든 숨은 활동가들이 많으시지만, 배우이자 연출가이신 박영희 선생님을 첫 번째로 모시겠습니다.

○발제1 미투 운동, 자발적 연대의 싹을 틔우다 - 박영희

저는 지난 2월 달에 오태석에 대한 공개 미투를 한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생존자라고 하니까 다양한 신체반응이 있으셨어요. 생존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잘 설명 안 되는 여러분들이 방금 느끼셨던 긴장들, 그 마음들이 앞으로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다양한 직책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연출가, 센터장, 학생... 단순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이 문제에 마주해서 함께 싸우고, 연대하고 협력하고자 모인 동료이자, 자매이자, 형제로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모두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옆에 계신 동료 여러분들과 따뜻한 눈인사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눈을 맞추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서 시작해볼까요? (청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윤택, 오태석이라는 시사성 강한 작품으로 평단과 관객의 지지를 받던 두 거장. 그래서 사실 연극인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행위는 옳지 않지만 거장들의 작품을 다시는 못 본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반응들. 그러나 공연의 완성자이자 주체인 관객들은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지난 2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300여명이 넘는 분들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열어주셨는데요. 혼란에 빠졌던 예술계에 아주 분명한 답을 주셨다. 공연예술계의 건강한 감시자로서, 피해자와의 연대의 지지를 표명해주셨습니다. 관객들이 연대하였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 두 번째는 생존자의 연대. 오태석의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자처했지만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실종상태. 저 개인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다수

의 피해당사자들이 있지만 막상 가해자가 가해사실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 반면 이윤택의 경우 초반에 적극적인 해명.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생존자의 연대를 불러일으킴. 김수희 연출은 처음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23인의 고소인단.

제가 며칠 전에 김수희 연출을 만났는데, 기대했던 바와 같이 이윤택 측에서 항소를 결정.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싸움은 결코 짧은 싸움이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더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 연극인 23인이 모여서 이렇게 연대를 했다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일. 피해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 할 수 있는지 씨앗을 던져준 것.

그 다음으로는, “연극인들은 어떻게 연대했는가?” 다양한 협회들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의 예술가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목소리를 대변하였는가 하면 의문이 많음. 150여명의 연극인들이 장장 7시간의 토론 끝에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 출범. 아마 이러한 수평적 자발적 연대체는 블랙리스트 이후에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 예술가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해외 공연계와의 연대 사례. 4월에 우연치 않게 루마니아 공연 소식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음. 즉시 연대하여서 행동에 들어갔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문의를 하고 항의 서안을 보냈는데, 그 대답이 기가 막혔다. 올해가 아닌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공연을 취소하면 막대한 수수료, 이러한 취소는 국가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다, 오태석 당사자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와같은 답변을 들었음. 공연행정기관의 안일한 인식을 반영한 것. 공연강행. 사실 루마니아의 공연 초청기관, 여성단체에 이메일을 다 보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고. 답을 들을 수 없었던 그 지점이 제가 국제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된 것이고 이 포럼의 시초가 되었다. 대만의 대표적인 지한파인 프로듀서 란 베이츠에게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 분들이 이를 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우리가 돕는 것이 옳은가? 그러나 우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란 베이츠 개인으로 성명을 내는 형식을 취해서 대만의 언론에 뿌렸는데 하루 만에 모든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다. 기사가 난 당일 초청기관이 극단 목화의 공연을 캔슬하였다. 유례가 없는 사례. 국제연대가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음. 란과 저는 일면식이 없었지만 친구가 되었고 저에겐 숙제가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

6-7월에 스웨덴에 갔고, 스웨덴의 사례가 궁금해졌다. 스웨덴에서 최초로 미투가 발발하였고 한 날 한 시 전 지역 미투. 한국에서는 개개인이 독립운동하듯이, 절벽에서 치마폭 뒤집어쓰고 떨어지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미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날 한 시에 같이 공동성명을 내고 미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뽀로 국영방송에 있는 제부를 졸라서 연락처를 얻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저를 모를 것이기 때문에. 과연 답을 해줄까 했는데. 그런데 저의 이메일에 오베라는 남자에 출연한 바할르 파스라는 이란 배우가 답을 해주었고 스웨덴 미투에 대해서 전반적

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뜻밖에 수잔나로부터 답장이 왔음. 앞으로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라는 답을 들었다. 사실 수잔나에게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냐고 물어봤다. 내 얼굴도 모르는 데 이메일 한통으로 어떻게 믿고. 수잔나 동료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 믿을 수 있겠니?' 수잔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런 문제로 거짓말하는 여성은 많지 않아. 이 말은 믿을 만해.' 인간에 대한 신의, 이메일로 거친 의사소통을 통해 여기까지 와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잔나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believing.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바하르라는 배우도 우리는 자매라고 저를 기꺼이 안아주었습니다. 플로우에 앉아계신 여러분들 자매들이고 형제들입니다.

수잔나와 연락이 된 이후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미투가 고발과 폭로를 넘어서 공연예술계의 생태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게 위해 자치규약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할까? 호주의 동료에게 물어보았더니 미국의 시카고 극단에서 만들어진 규약이 영어권을 넘어 통용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규약을 만든 로라 피셔를 알면 소개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그 동료가 로라에게 연락을 하고 이틀 만에 답이 왔다. 로라 피셔와 두 시간 동안의 전화회의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 해서 시카고 스탠다드를 만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배우, 작가, 연출가. 미국 내에서 미투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피해자들이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소수의 동료들과 고민하고, 많이 알려지면 이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까봐 지원금도 받지 않은 채 조용히 1년 동안 만들고 20개 극단에 테스트를 거쳐 미국 전역에 퍼져서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고 함. 내년 2월에 시카고 스탠다드에 대한 포럼 개최 예정.

그 동안의 과정을 통해 깨달은 바는 세계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의 예술가들, 미국, 호주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라는 깨달음. 더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치지 않고 싸움을 계속 하는 한 희망은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이 포럼이 시작되게 된 배경, 오늘 포럼에서 나누게 될 이야기를 꼭 소개해주시는 박영희 선생님의 발제를 들었는데요. 누군가의 고군분투를 통해서 연대가 가능하도록 이런 자리. 말씀하신대로 왜 어떤 선구자가 있어야만 할까. 박영희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곳에 다녔을 거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셨을 테고 그런 것의 수고로움.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발제2 스웨덴 예술가들의 공동미투 선언 - 수잔나딜버

(발제문과 동일)

사회자

저희가 91년도 성폭력 추방운동 시작하면서 어느 단체에서 국제회의에 다녀오던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성폭력은 위아더월드야. 어떤 데도 더 나은 데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아까 구조에 대한 이야기, 결국 권력의 문제라는 이야기. 스웨덴에서까지 남편이 보호막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에서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을 공부하러 온 대학원생이 꽤 있더라고요. 스웨덴의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은 어떤 한 피해자가 혼자 나서서 자기를 불태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일인 거죠. 또 다른 동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제3 미국 시카고 씨어터 스탠다드 보고서 - 전강희

안녕하세요. 저는 전강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비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평보다는 현장의 시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에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이 진행했던 포럼 주제가 '침묵의 카르텔'이었습니다. 제도나 이런 큰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결국엔 분노, 눈물, 이렇게 피해자가 많았다니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말았거든요. '시카고 스탠다드'는 우리의 뜨거움과는 다른 느낌이어서 반가웠습니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에서도 매뉴얼을 준비하고는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이런 상황이 성폭력이다,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된다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들. 내가 피해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희롱당했구나를 이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매뉴얼까지는 나오지 않았습시다. 아마도 다음 스텝은 이런 매뉴얼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스탠다드'는 현재 번역 중에 있습니다. 완성본은 12월에 보실 수 있고 이것은 초고로, 나누기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2. 배경. 까지 발제문 읽음)

CTS는 법령은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고. 극장이나 배우들이 참고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극장 상황을 기준으로, 배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있기에, 전 스텝의 위치라 왜 스태프들에 대해서는 안 만들어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웃음). 자세히 읽다보면, 배우가 해야 하는 역할이 정확해질수록 같이 일하는 스텝의 역할도 정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여기에는 서술하지 않았지만 CTS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디가 주관을 하게 되구요. 프로덕션이 구성되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모여 이것을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배우, 스태프, 행정가, 관련자들이 모두 참여를 합니다. 피디는 이것을 왜 선택했는지를 밝

히고 이것을 읽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을 읽는 것은 악당과 주인공을 나누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어야 하는지,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이런 것이 조금 자세하게 단계가 세 개로 나누어져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CTS의 자료를 얼마만큼 보여줄 것인가. 극장의 자료제공은 단체의 지향점에 따라 구분되지만, 전문을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에 똑같은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바뀐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를 피디분께서 정해주시더라고요. 조금씩 바뀐 부분을 저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강령. (발제문에 덧붙인 내용만 기재함)

- 위험한 상황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왜 하는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뒤를 읽어보면, 배우의 경우에 폭력적인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극중 역할을 맡다보면 이러한 행동을 연습실에서도 해야 할 때, 캐릭터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야 할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CTS에 쓰여져있기를, 당사자 배우들뿐만 아니라 연출, 스태프, 피디 모두 모여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관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좋은 작품을 위해 불편한 부분도 안전하게 감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CTS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행해보는 기관들이 더 좋은 제안을 하거나 덧붙일 수 있고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항목이 많아질 수 있다고 나와 있다.

4. 구체적 기준.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유했으면 하는 것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오디션 관련해서 이것이 매우 상식적인데도 우리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상식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CTS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구가 '앞으로 오디션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없이' 이 문장이거든요. 연극계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왜 no를 하지 않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캐스팅 관계자'는 제 생각에는 우리의 경우는 '심사위원'이라고 정의를 해봤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이 '우리는' 의 자리에 극장의 이름, 개인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도록 상황에 맞춰 바꿔서 써라,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오디션에서 요구하는 물리적 접촉은 안무가가 짜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디션 진행하는 순간에 '그냥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 캐스팅 관계자는 예비참여자에게 보내준 자료를 미리 검토하게 합니다. 저도 가끔 심사위원을 보기도 하는데, 자료를 다 검토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게 배치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명시한다고 보여줍니다.

- 예비참여자는 오디션이나 캐스팅 제안을 거절 할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권리라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 여기서 제가 제일 충격 받았던 것은 '세 번 이상의 오디션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 저는 understudy가 있는 공연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공연을 길게 할 경우에, 어떤 배우가 사고가 날 경우나 이럴 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배우를 말합니다. 지금 발표문에는 없지만 기준서에는 이 understudy이기 때문에 무대에 설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본을 언제까지 보면서 연습에 참여하는지, 대본을 언제 놓아도 되는지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계약의 경우에 '급료'와 '사레비'를 구분하는 것도 우리의 연극현장에서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때때로 급료와 사레비를 지급해야 했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구분을 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원단체에서 요구하는 데에 맞추어서 했지, 이것을 당사자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고위험 활동은 배우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나 안무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나 안무가는 프러덕션 과정에 가능한 빨리 참여해야 한다고 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극현장에서는 디자이너나 안무가도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페이의 문제나, 구조의 문제 때문에.
- stage manager, CTS에 표기되어 있는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 한국에서는 누구였을까 생각했을 때 조연출이었을 것 같습니다. 국립극단의 경우 프로덕션 매니저가 있거든요. 이 두 역할을 섞은 것이 아닐까? 노출신 의 경우 따라들어가서 기록을 하거든요. 우리의 경우에는 조연출을 나이 어린 분들이 맡습니다. 해당 역할에 대한 전문성으로 들어간다고 보다는 과한 책임을 부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12월에 더 정확한 번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론1 밑에서 발견한 연대의 힘 - 조한진희

안녕하세요. 저는 조한진희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반다라는 이름을 써서 일부분들은 반다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실 거 같아요. 팔레스타인 취재를 다니다보면 실명을 쓸 수 없어서, 보안이 중요해서, '반다'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다닐 수가 없어서 활동을 포기하고 실명을 쓰고 있습니다. (웃음) 연대가 주제인데, 저의 소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페미니즘은 발화자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사람의 우치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서 있는 곳에 따라 풍경이 달라보인다 이런 말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0년대 학생운동하면서 운동권 내의 성차별, 성폭력을 목격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목도하면서, 민족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말이에요. 이라크 전쟁을 목격하면서 페미니스트로서 민족주의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고민을 하게 됐고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현장에 오가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된 것은 영상활동가로 살아온 정체성이 길어요. 다큐인이라는 공간에서 영상활동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기도 했고 이제 운동사회의 성폭력 대책위를 여러 차례 했었던 경험들이 이 자리에 초대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연극계에 성폭력이 많은가’ 이런 질문은 나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궁금해 하느냐가 나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여성일까 남성일까, 게이일까 레즈비언일까, 트랜스젠더 아니야? 혹은 엔젤일까 피디일까? 이런 것들이 다 제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왜 연극계에 성폭력이 많은가’ 이런 질문들은 어떤 의식 안에서 파생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르테면, 스웨덴은 성범죄율 통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스웨덴보다 성범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범죄율은 신고율의 8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짐작할 뿐이죠. 스웨덴의 경우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거나 이런 것이 문제 되지 않고 한국보다 상황이 더 나은데. 물론 이런 경우에도 가해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연대자들이 많고 신고할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신고율이 높은 것이지요. 얼마 전 난민의 경우도 스웨덴의 난민 범죄율이 높다는 가짜뉴스가 있기도 했는데, 통계들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연극계에 성폭력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헤드라인이 뽐히면 그 집단의 여성들에게 피해자 혹은 방관자라는 낙인, 여러 말들이 들끓을 때 상처받은 연극인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극계의 공동행동에 대해: 문학이라던가, 사진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하는 작업인 데에 비해서 영화는 공동체적인 작업이긴 하지만, 굉장한 자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집단작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고. 그래서 연극계에서 이렇게 활동이 활발하게 된 토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극계의 반성폭력 운동 그것이 다른 문화예술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 저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행동을 하는 연극인들의 어깨가 더 무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익명의 500명 공동성명에 대해: 한국의 경우에는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대동단결하고 대의를 위해서 개인의 욕구, 실현고자 하는 것들은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집단의 큰 목표 아래서 휘발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하고 집단에서 그것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스웨덴의 경우는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500명의 개인이 모였지만 공동과 개인, 전체와 개인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스웨덴의 '개인'에 대한 경험 사례. 연극 하시는 분들이니까 몸의 감각 이런 것들을 잘 아시겠죠. 제가 느꼈던 감각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사례를 넣었습니다.

미투 이후:

- 영역별로 성폭력 양태 파악. 거대한 지도그리기. 영역별 반성폭력 운동. 이를테면 연극계 성폭력과 영화계 성폭력의 문제의 차이와 공통점. 이것이 한국사회의 보편의 문제는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영역의 내부의 문제인지, 이런 것이 무 자르듯 나뉘지는 않겠지만 어떤 현상과 순간을 포착해낼 수 있고 분석해낼 수 있다.

- 가해자가 역고소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럴 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연극인들 내부에서 반성폭력 규약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서명을 하고 그 규약을 지켜나가는 것. 고소를 되게 많이 당해봤었는데, 자치규약을 갖고 활동을 하면 공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부터 우리들을 지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 규약의 조항들을 합의해나가는 과정이 지난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반성폭력운동을 진전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150명이 밤새 토론하고 수잔나 선생님을 만나 토론하고 이런 일들이 내년에는, 일본이 미투가 안된다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스웨덴에 저런 사례가 있다. 제가 보기엔 스웨덴이 취했던 전략이 일본에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의 환경을 봤을 때. 내년에는 일본에서 박영희 선생님, 수잔나 딜버를 초대해서, 여성에게 국가가 없다면, 이런 연대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촛불이 아니라 햇불을 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혁명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토론2 우리가 꿈꾸는 현장 - 김신록

안녕하세요. 저는 김신록입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배우, 창작자, 그리고 워크숍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 이 토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주최를 하는 기관들에 방문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웃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가 대한민국에서 서른 여덟해를 여성으로 살아왔고 15년을 대학로에서 배우가 아니라 여배우로 살아왔고 미투 정국 전후해서 배우로 흘러가고 있으니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저는 아주 사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저는 사실 수잔나 선생님의 미투 사례를 읽었을 때 바로 본격적인 성폭력 사례 미투 사례 이런 것이 나올 줄 알았어요.

(수잔나 딜버의 발제문 발췌독.)

(발제문 여성의 가치는 남성에게 어떤 매력을 가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에 이어서)

저는 마지막에 너무 취약해서...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데스데모나가 너무 하고 싶다 했을 때, 저를 아주 신뢰하는 동료가 깊이 생각하다가, '데스데모나는 글래머러스해야 한다.' 마샤 오디션은 여섯 번 정도 불려가서 최종 탈락했을 때, '마샤를 하기에 너무 스마트하다.' 캐릭터라이징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고 자의로 타의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남자 분들도 성폭력 예방교육 들으면 좋아 이런 말도 하시고. 이러면 요새는 안 된다며~ 그러나 우리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상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제가 <비평가>라는 작품에 참여하게되었습니다. <비평가>는 남성 배우 2명이 등장하는 2인극입니다. 그런데 연출자의 아이디어로 여자배우들이 수트를 입고, 여자로 번안하지 않고, 각색하지 않고 연기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저도 15년 만에 여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연기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반박하고 주장하고 무시하고 울부짖고. 여자는 뭔가 애달파야하고 뭔가 참아야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속이 시원하고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관객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해도 되는 데 왜 남자들만 연기했어. 아! 그렇구나 하고 공연이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와서 공연을 보고 나왔는데 자기가 사실 티켓매니저인데 공연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인데, 비평가를 보면서, 정말 두 명의 여자배우들이 때려부수듯이 무대에서 여자들이 이러는 건 처음 봤어요. 세상이 뒤집히려나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얼굴이 상기됐는데, 아 그렇군요...하고 대학로를 나왔는데, 혜화역에 어제 정말 훨씬 길게 여성들이 집회를 하는데 '찍지마!' '찍지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꿈꿀 수 있을까. 그 관객 분은 무대를 보고 무엇을 꿈꾸었나. 길 거리에 나와있는 여성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국립극단에서 <오슬로>라는 작품이 시작합니다. 토니상 수상작. 국내에서 연기 잘한다는 배우가 짝 출연을 합니다. 총 출연 배우 15명 중에 여자배우가 4명인데, 4명 중에서 메인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그 남자배역들의 부인. 그걸 참여하는 남자배우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메인인 여자배우가 15명 중에 1명 밖에 없어. 그 남자배우가 하는 말이, '남자들이 자기 잘났다고 아웅다웅하는데, 그 남자들은 여자 한 명 때문에 아웅다웅을 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세상을 조정하고 있는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 나도 세상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싶다. 현명한 그 한명의 여자가 아니고 싶다.' 관객으로서 기대되지만 국립극단이 작금의 흐름이나 미투 다른 작품을 선정할 수는 없었을까. 사실 급하게 새로운 작품을 찾아낸 작품이 이거였어요. 결정된 때가 6월 말경이었는데, 사실 미투가 벌어지고 고소고발 탄원서기 막 나오던 시기에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협회마다 다 들어가봤죠. 성폭력, 미투, 위계. 이런 것들 찾아보면, 나오는 것은

성폭력 예방교육. 기관이 이해하는 미투운동이 성폭력 예방 교육이 단가? 이렇게 밖에 상상력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잔나 딜버의 발제문 발췌)

(발제문의 스웨덴 미투 이후 정부기관과 언론의 대응에 관한 내용에 이어서.) 문체부가 미투운동에 개입할 일은 절대 없다(웃음) 협회라는 곳 역시 마찬가지겠다. 언론기사 제목이 '우리는 성폭력에 충분히 시달렸다.' 우리는, 우리는 누구인가. 한국의 언론매체가 이런 식의 기사나 제목을 달아줄까. 광범위한 연극인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의 연대 이외에는 도리가 없는가? 박영희 님의 국제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보니, 희망적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없는가? 그러다보니 정말 없구나 하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cts를 보며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이 겪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이구나, 안경을 낀 것처럼 시원하게 보이게 되면서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디션과 리허설에서 겪었던 자신의 불합리한 사례들 소개) 이것보다 훨씬 과격한 성폭력 문제나 위계폭력 문제는 전부 제거된 상태입니다.

[질의응답-전체토론 시간]

사회자

상식이 상식으로 작동되지도 못하도록 오염되어버린 현장, 원래 그래 이게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청중 1

대학로 문화의 거리를 산책하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뜻하지 않게 좋은 포럼을 참석하게 되어 참 기쁘고 젊었을 때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미투가 뭐지요? 한국말입니까? 외국말입니까? 한국말이라면 미지근한 투쟁. 미투에 관해서라면 전전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을 빼놓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저명하신 외국인을 초청했나봐요. 그 외국인이 초청받은 인사 통역의 귓속에도 대고 미투하세요. 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미투 영부인인 이순자가 미쓰리라고 했다고 해요. 정말로 새롭습니다.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 폭력뿐만 아니라 권력자의 행태에서 우리는 따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권력자가 가장, 예나 지금이나 먼저 선도적으로, 미투 운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 약자를 항상 무시하고 짓밟아왔다는 것.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더 합니다. 권력과의 투쟁 속에서 여성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권력에 대해 순종하지 않으면 안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회자: 짧게 부탁드립니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어요.

자기 남편부터 잘 여기에 모시고 와야 한다.

사회자

구성원들이 함께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박영희

수잔나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선생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잔나의 발제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많은 남성 동료들이 여성동료들이 당하는 것을 놓쳤거나 보았음에도 미처 반응하지 못했거나, 지지하지 못했거나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한국에서도 거의 같은 상황을 남성 동료들이 겪고 있었어요. 많은 남성 동료들이 방안에 틀어박혀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술을 먹으면서 나의 일 년 전, 몇 십년 전의 기억을 복기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성들이 머리를 벽에다 박고 자책하는 마음을 그만두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여성동료들이 옆에서 서서 지지하고 협력하고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죄책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머리를 박는 행위는 그 정도면 됐다 그 에너지를 여성동료들을 위해서 힘을 써라. 적극적으로. 그 말에 백번 공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옆에서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력으로 쓰신다면 우리도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청중2

수잔나 선생님에게 질문. 자료집 17p에 보면, 스웨덴도 법률이 잘 지켜지지 않고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사법처리가 잘 운영되지 않고 붕괴되어 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청중3

문체부에서 성폭력 관련 법안을 제도로써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스웨덴의 평소의 복지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미투 이후에 제도적 변화와 협회에서, 어떤 것들을, 마치 시카고 스탠다드처럼 바뀌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문장을 알면 조금 더 한국에서 새로운 제도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중4

김신록 배우에게. 저는 작년 비평가를 봤고 올해도 봤는데, 여성배우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봤는데. 제가 볼 때 배우들이 젠더 밴딩이 된 상황 자체를 그냥 남성배우를 연기하심으로써 그걸 연기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젠더 프리는 어떤 캐릭터를 함에 있어서 내가 굳이 기존에 요구하는 여성임을 연기하

지 않고 나 자신임을 인정받는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성배우의 옷차림이나 말투나 행동을 연기하시는 게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청중 5

한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익명이 발언을 했어도 결국에 언론에서 2차 가해처럼 공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런 식으로 익명으로 발언해도 공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아무리 500명이 발언을 했더라도 언론이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길래 공개되지 않고 익명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청중 4에 대한 김신록의 답변

그런 관련된 질문을 관객들에게 많이 받았어요. 중립적으로 했다고보다는 기본적으로 남성 연기를 했었는데요. 젠더밴딩, 젠더프리, 젠더블라인드, 젠더스왑 여러 용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기하는 것을, 캐스팅하는 것을 지칭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연극계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시도가 되면서 용어들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품을 할 때, 심리스라고 하죠, 퀘멘 자리 없이 매끄럽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그 작품에 남성지식인 두 명이 등장하는 데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곳곳에서 합니다. 그게 연극할 때 객석에서 나가버린 똥똥한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을거야 등 희화화를 의도하지 않고 일상 속에 녹아있는 여성비하적인 표현들? 남성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력들을, 남성이라는 것을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그걸 노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만약 남성이 연기했다면 완전히 덜컹거림 없이 해결해버렸다면 문혀졌을 단어들, 관계들 같은 것이 드러나는. 그러나 저 역시 젠더와 관련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정밀한 시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중2에 대한 수잔나 딜버의 답변

스웨덴의 차별금지법에서 성희롱, 성폭력은 6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이에 따르면 여러 발제자들, 특히 배우 김신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은 제가 보기엔 명백한 성폭력, 성희롱입니다.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업무환경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행동으로 간주되어서 고용주가 조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않다고 생각하고요. 각 극장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미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우리는 친구니까 술 한 잔 하고 해결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결코 고용주의 의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용인들 배우들에게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거나 공유하지 않아서 개인들이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조사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 3단계는 경찰조사까지 가는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수잔나, 김신록 배우의 권력과 젠더 관계에 대하여 첨언

매우 동의하는 바이며 이 모든 것이 권력 위계와 권력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젠더문제 자체도 권력의 불평등 자체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중 3에 대한 수잔나의 답변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모든 극장에서 그들의 정책을 다시 고려하고 그들의 의무를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법적인 의무조항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식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리허설 전에 함께 큰 소리로 읽기도 하고 연락망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카고 스탠다드와 스웨덴이 다른 점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고발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것. 가해자가 연출이라던지 임원진과 같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 그들이 아닌 외부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고발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추가질문1

사업장을 모든 극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몇 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국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로. 사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스웨덴의 경우 모든 극장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수잔나의 답변

스웨덴에서 제가 말하는 모든 극장이라는 것은 국가 지원금을 받는 곳을 뜻합니다. 공공 지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적인 감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제가 말했던 법적 규제들은 공적 지원금을 받지 않는 극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도움망이라던지 인적 자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스웨덴에서는 피해자만이 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폭력을 목격한다면 제가 연출 등에게 고발해서 조사로 이어지게끔 할 수 있습니다.

청중 5에 대한 수잔나의 답변

익명성 유지에 대한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를 내기 전부터 오랜 시간 논의했던 부분. 저희 비공개그룹에서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행정부분을 담당하는 분들이 진위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조인하고 싶어했는데 그들이 정말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검증함으로써 우리의 익명성과 비밀성을 유지했습니다. 안전한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최소에 하루에 한번 매일 매일 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고. 물론 기자와 소통을 했던 여성들은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고 소통을 해야만 했지만 그들이 그 기자에게 전달하는 익명처리가 되어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이야기가 누구의 상황인지는

절대 밝혀지지 않았습니니다. 패널들 중 누군가가 '나의 가해자는 유명하지 않아서 밝혀지지 않을 거야'라는 말을 했었는데, 성폭력 사례에서는 누가 했는가가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익명을 함으로써 그 사람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자

사건 중심으로만 이야기하면 피가해자만 중요하고 그 외의 공동체 구성원들도 별로 안 중요해지잖아요. 공동체 문화도 안 중요해지고. 일상의 문화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는데 그 이야기의 연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영희

한국의 상황에서 미투가 촉발했을 때 각 피해자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해 했던 지점들이 이거였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희롱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폭력일까. 이 상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부터 굉장히 혼란한 지점이었는데요. 수잔나께서 여섯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세 단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상위 세 단계는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차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섯 가지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잔나

근간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인종 젠더 능력 같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누군가를 깔보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외모같은 것에 너무 집중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에 집중하지 않고 '너무 귀여워서 너의 말에 집중할 수 없어' 이런 사소한 행위도 폭력으로 강조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소위 말하는 만지지 않고 만지는 기분이 들 때. 눈으로 옷을 벗긴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원하지 않는 특정 부분을 너무 오래 쳐다본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요. 셋째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 예를 들어 머리카락 치워줄게 하면서 가슴을 슬쩍 만진다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밀착할 때 '네가 나한테 만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어 난 그런 뜻 전혀 없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등을 두드리는 것 같이 행하는 사람은 성희롱의 의도는 없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셋째 단계까지는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작업환경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네 번째는 명백한 성희롱 행위, 신체접촉. 키스를 하려고 시도한다거나 동의 없이 신체부분을 만진다거나 하는 상황. 5번, 6번은 연결이 되어있는데. 다섯 번째는 옷을 벗기려 한다던가 덮친다거나 때린다거나 성폭력을 한다거나. 동시에 일어나곤 하는 여섯 번째는 협박. 나랑 자지 않으면 너의 커리어는 끝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가 옷을 벗고 있는 사진, 영상을 유포할 거야, 이런 협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들, 법률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것이다. 나의 상황이 여섯 가지 중 어느 상황에 속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질 수 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위단계를 분명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중의 추가 질문 1

외모품평이라거나 쳐다보는 상황의 경우. 아까 그 1,2,3, 단계에서는 피해자는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쳐다봤다라고 하는 데, 가해자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1,2,3 단계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수잔나

그래서 이것이 범죄행위가 아니라 작업장 내부의 문제입니다. 가해자는 의도 없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는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불편하다면 불편한 것이고. 껴안고, 부대껴서 불편했다면 이는 가해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피해자가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자 추가 질문 2

국내의 상황으로는 고용주의 의무로서의 조치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나 봉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럼 고용주에 의해서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 국가의 제재가 있나요?

수잔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경제적인 손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자

한국의 경우에도 법은 다 있어요. 법은 잘되어 있어요. 사실 미투 이후에 국회에서 백 몇 십개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문제는 피해자가, 생존자가 발화했을 때 믿지 않아버리면, 의심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성매매가 규제될 때 피해자가 그렇게 가시화되지 않고, 성구매자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미투 이후에 거의 1년인데, 스웨덴에서 혹시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한 캠페인이 있는지, 있어왔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잔나

실제로 스웨덴에서 여러 훌륭한 단체가 가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기르는 방식입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겠지만 남자 아이가 여자아이의 머리로 잡아당기고 괴롭히면 개가 널 좋아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지나가는데, 아이들에게 폭력이 관심을 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된다. 여기서 벗어나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성들이 웃는 얼굴로

고분고분하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중 6

피해당사자 말고 제3자가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되게 속 시원하긴 한데,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고발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조항이 추가될 수 있었는지, 어떤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는지 궁금하다.

청중 6의 질문에 대한 수잔나의 답변

이 모든 것이 성폭력, 성희롱의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누군가를 때린다면 모두가 잘못된 일이야 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피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창피한 일이나 수치심을 느낄 일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점점 더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심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돌려주는 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범죄를 목격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자

속 시원하지는 않으시죠? 이게 문화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인데. 그게 제거가 되어야 목격자가 신고를 하던, 당사자가 신고를 하던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일 텐데. 목격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인식 수준이, 성폭력에 관한 인식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그것이 범죄이고 도움이 청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존자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도 모르는 후진 문화를 개선하는데 우리 개인들이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를 결심하게 합니다. 어떤 조력인으로 함께 할 것인지, 어떤 생존자로 힘을 낼 것인지, 어떤 연대를 해나갈 것인지. 혁명이라고도 표현하셨고요. 우리에게 국가가 없다면,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라도 올해는 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후진문화를 갖고 있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혁명적일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이 끝이 아니고 오늘을 시작으로 오늘 여기 연극인만 오신 것이 아니세요, 활동하는 분들, 학생들도 오셨고. 오늘 이후로 좀 더 나은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자료1]

안전지대는 없었다. 지금 스웨덴은 미투 ‘혁명’ 중¹⁴⁾



지난 2017년 가을 스웨덴의 각종 신문과 잡지의 표지는 #MeToo(이하 ‘미투’)의 쓰나미였다. 온 나라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캠페인인 미투 운동의 열기는 영하의 스웨덴을 몇 달째 달구고 있다. 스웨덴의 권위 있는 신문인 다겐스 뉴예테르(DN)에 따르면 스웨덴의 미투 운동은 이제 ‘혁명’이며 ‘1919년 여성 참정권 운동 이후 가장 큰 여성 운동’이라고 한다.

미투 운동이 퍼지자 스웨덴의 수상은 국내외를 향해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책에 관해 발표했고, 스웨덴 왕족까지 나서 이것은 “거대한 힘”이며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 사회에 더 나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격려에 나섰다.

의아했다. 스웨덴은 덴마크, 노르웨이 등 이웃 나라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 중 하나가 아니던가? 내가 잘 못 알고 있었나?

안전지대는 없었다: W, 물꼬를 트다

서른두 살의 스웨덴 여성 W¹⁵⁾는 스무 살을 갓 넘겼을 무렵 성폭행을 당했다. 10여 년 전 일이다. 가해자 X는 스웨덴에서 가장 부수가 많은 신문의 유명 칼럼니스트였다. 몇 년을 속으로 삭이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덮었다.

지난해 거물급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에 대한 할리우드 배우들의 릴레이

14) 출처 :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68264> 필자: 오한아 / 작성일 : 2018-02-20

15) 스웨덴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개인정보 보호를 인권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하는 일이 드물다. 스웨덴식으로 알파벳으로 표기했다. (필자)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을 본 W는 이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다. 가해자의 이름 옆에 “X가 내게 약물을 먹이고 강간했다”라고 쓴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피해자는 W만이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X에게 당한 여러 명의 여성도 비슷한 내용의 고백을 올렸다.

나쁜 인간은 X만이 아니었다. 곧 스웨덴의 유명 예술가, 언론인 등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글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에는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 위원도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주로 일로 연관되어 있었다. 가해자는 주로 자신의 지위와 권력, 영향력을 이용해 여성을 희롱하고 폭행했다. 피해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조직 내에 이를 알렸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강간 가해자로 지목되었는데도 여전히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있다. ‘그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등의 이유로 윗사람은 가해자의 자리를 보존해 주었다. 하지만 다들 암암리에 알고 있었다. 산업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말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W가 스웨덴의 미투 운동의 물꼬를 튼 후 피해 사실 고백이 막힌 독이 터진 듯 전국적으로 쏟아졌다. 몇 주 만에 수만 명의 여성이 미투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다. 직업군별로 서명운동과 가두 행진, 거리 연설도 시작됐다. 스웨덴의 여성 법조인 6천 명이 성폭력에 대해 한 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청원을 들고 나왔다. 오스카상 수상자인 알리시아 비칸데르를 포함해 여성 연극인과 영화인도 성명을 발표했다. 스웨덴의 아카데미상 격인 골드바게 시상식에 여배우들은 상징적 의미로 검은 옷에 손을 잡고 입장했다.

법률, 의료, 국방, 정치, 학계에 이르기까지 안전지대는 없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누구의 몫이어야 하는가

스톡홀름 대학에서 형법을 가르치던 마델린 레이온후프부드 교수는 스웨덴은 밖에서 볼 때 평등하고 개방된 사회처럼 보이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과 권력관계에서 아직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스웨덴은 제도를 통해 평등을 선언하고 있지만, 일터를 비롯한 직장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폭력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여성의 책임인양 인식되어 왔다. 여성은 형법 제도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받지 못한다. 강간 사건이 발생하면 당시의 상황, 여성의 옷차림 등에 대한 문제가 항상 불거졌다. 다른 범죄에서는 없는 일이다.” (마델린 레이온후프부드, 스톡홀름 대학 ‘형법’ 교수)

이번 미투 운동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성폭력의 수치와 책임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지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박혀있던 성에 관한 불평등한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은 피해를 입고도 피해사실을 공개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탓했다. '내가 잘못 행동한 것은 아닐까', '내가 빌미를 준 것은 아닐까' 하며 위축됐다.

주변에서는 피해를 알고도 쉬쉬했고 넘어갔다. 가해자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속 직책을 유지했다. 미투 운동은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밖으로 끌어냈다. 피해자의 개인적 고발이나 투쟁을 넘어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수치며 사회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완벽한 사회? 그런 건 없다, 변화는 지금부터다

다겐스 뉘에테르는 2017년 12월 중순에 미투 운동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여성 응답자의 30%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한다. 응답자의 70%가 지난 한 주간 친구, 가족, 동료와 일터에서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인상적인 부분은 남성들도 여성과 똑같이 대화에 참여했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스웨덴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성평등 제도가 많이 도입된 나라다. 스웨덴에서 아빠와 엄마를 구분하는 차이는 모유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뿐이라는 우스개가 돌 정도다.

- 90%의 아빠가 참여한다는 육아휴직
- 남녀 모두 80%대인 경제활동 참여율
- 10%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
- 절반에 가까운 여성 국회의원 비율



거기다 현재 스웨덴 총리인 스테판 뢰벤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밝히지 않았던가? 뢰벤은 2014년 선거에서 이긴 후 총리 포함 23개 부처 장관 총 24명을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각 12명으로 구성하며 스웨덴은 페미니스트 내각이라고 천명했다. 그런 스웨덴에 성폭력이 이렇게나 많았다고? 그동안 우리는 스웨덴의 마케팅에 속은 걸까?

답은 제도가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도가 변화의 지렛대가 될지는 몰라도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는 없다. 해당 사회 구성원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 이번 미투 운동의 여파로 곳곳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열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동의 없는 접촉은 물론 인식하지 못하고 던졌던 농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슬쩍 올렸던 손도 범죄라는 인식이 싹터야 한다. 미투와 #WithYou(위드유)가 함께 가야 하는 이유다.

스웨덴은 완벽한 사회가 아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씩씩해 보였던 스웨덴 여성 중 다수가 직장 내 성희롱과 폭력의 피해자였다. 변화는 지금부터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가, 얼마나 강하고 집요하게 성평등을 위해 소리치고 나설 것이며 성평등 시소의 다른 한쪽 편에 있는 남성들은 얼마나 인정하고 공감하며 변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라면 스웨덴은 분명 한 걸음을 뗐다.

[참고자료2]

스웨덴 ‘파타법’, 강간의 기준이 달라지다¹⁶⁾

법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희정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마음속으로 (성관계에) 반대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 체계에서는 피고인(안 전 지사)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 볼 수 없다.” (조병구 부장판사)

저 역시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재판부는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니 법리상으로 안희정은 무죄로 판결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람은 명백한 증거와 객관성을 기준으로 삼지만 판사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여지가 없다면 판결은 AI가 해도 될테니까요. 때때로 전향적인 판결이 사회가 나아가는 물꼬를 터주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에 많은 이가 주목했습니다.

스웨덴의 ‘파타법’

올 7월 1일부터 스웨덴에 파타(fatta)법이라 불리는 새로운 법이 발효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강간의 재정의입니다. 파타법에 따르면 성관계에 있어 상대가 반드시 말로는 행동으로든 분명하게 동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no’라고 하지 않으면 ‘yes’인 것으로 보았는데 이제 ‘yes’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해야만 ‘yes’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성행위나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행위’만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분명한 동意的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입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16) 출처 :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70693> 필자: 오한아 작성일: 2018-08-22

물론 친밀하고 개인적인 상황의 일이니 이를 증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젠 강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입법취지가 널리 알려지고 나면 성관계에 임하는 개인의 역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예스’와 ‘노’ 사이 무수히 많은 애매모호한 상황이 이전에는 암묵적 동의로 간주되었다면, 지금은 거절로 간주되는 것이니 그야말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엄청난 차이지요. 섹스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새 법의 개념은 벌써 학교 교육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파타법은 사실 ‘FATTA!’라는 단체가 끈질기게 매달려 입법까지 이뤄낸 법입니다. 2013년 한 여성이 세 명의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당시 여성의 손에 술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남성들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파타!는 150건의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모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의 유명 래퍼인 클레오(Cleo)와 가수인 크리스틴 암파로(Kristin Amparo)가 이 내용을 Fatta!(알아들어!)라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뮤직비디오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됐고, 사회적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METOO 까지 불거지면서 남녀가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마침내 파타 법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적극적 문제제기에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입법이 되기까지 5년이 걸렸지요.

요즘 성 대결의 양상이 어떤 수위를 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스웨덴의 파타법이 평등의 논의와 사회적 운동에 어떤 자극이 되었으면 합니다.